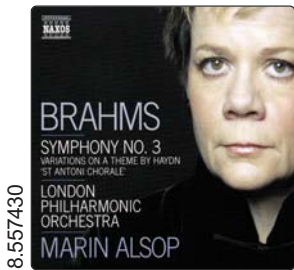


낙소스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 선정'
Naxos new rele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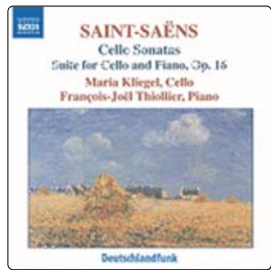
8.557430

브람스:
교향곡 3번
하이든 주제에 의한 변주곡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마린 알소프



8.570033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클레어 러터(sop), 톰 랜들(te),
마르쿠스 아이헨(bar)
본머스 심포니와 합창단
마린 알소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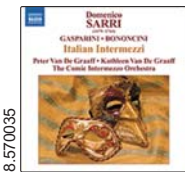
8.557880

생상:
첼로소나타 1, 2번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Op.16
마리아 클리겔(vc)
프랑소와-요엘 티올리에르(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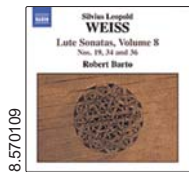
8.570249

부조니:
피아노음악 (바흐 아디지오와
푸가 BWV564 편곡, 인디언
일기 1권, 발레장면들 외)
볼프 하덴 (pf)



8.570035

보논치니 & 가스파리니:
미레나와 플로로
사리:
모스케타와 그물로
더 코미 인터메조 오케스트라
페터 판 데 그라프 &
캐슬린 판 데 그라프



8.570109

바이스:
루트 작품집 Vol.8
(소나타 19, 34, 36번)
로베르트 바르토 (baroque
l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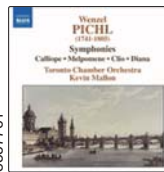
8.559325

필립 글래스:
영웅들(Heros) 교향곡,
빛(The Light)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마린 알소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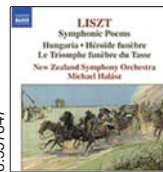
8.557505

스트라빈스키:
병사의 이야기, 불가의 배 끄
는 이들의 노래, 러시아 스케
르초, 파카소를 위하여 외
여러 음악가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 외
로버트 크레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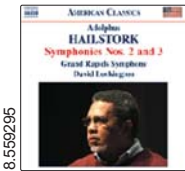
8.557761

피흘:
교향곡(칼리오페, 클리오,
다이아나, 엘포네)
토론토 챔버 오케스트라
케빈 말론



8.570847

리스트:
교향시 (헝가리아, 영웅 추모,
타스 비탄과 승리)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미카엘 할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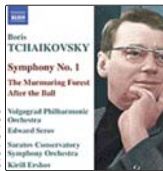
8.559295

헤일스토크:
교향곡 2, 3번
그랜드레피츠 심포니 오케스트라
데이비트 락킹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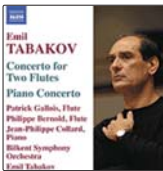
8.557703

키리:
영화음악 (브람 스토크의 드라마
라, 죽음과 소녀, 최후의 왕,
목주의 구슬들, 왕관의 진주)
크라코프 필하모닉 합창단
폴란드 국립 방송교향악단
안토니 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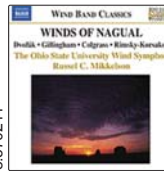
8.570195

보리스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1번, 숲의 속삭임,
무도회가 끝난 뒤
블고그라드 필하모닉
에드워드 세로프 &
사라토프 음악원 교향악단
키릴 에르쇼프



8.570773

타바코프:
2대의 플루트를 위한 협주곡,
피아노협주곡
페트리 갈라와,
필립 베르놀트(n),
장 필립 콜라르(pf),
빌렌트 심포니, 에밀 타바코프



8.570244

드보르:
현을 위한 세레나데(관악편곡),
콜레타: 나팔의 비람,
림스키코르스키:
왕비의 비행 외
오하이오 주립대학 윈드 심포니
라셀 C 메켈스



8.557934

클라크:
비올라소나타, 프렐류드,
알레그로와 전원곡, 중국 퍼즐,
자장가, 파사칼리아 외
필립 듀크스(va)
다니엘 호프(vn)
소피아 라만(pf), 로버트 플랜(cd)



8.557005

파야:
피아노음악
(야상곡, 세레나타, 드뷔시
오마주, 줄 투카의 무덤, 스
페인 소품, 사랑은 마술사)
다니엘 리고리오(pf)



8.557823

뒤티외:
피아노작품전곡
(소나타, 3개의 전주곡,
바흐 오마주, 에튀드,
검은 새, 광명 외)
존 첸(pf)



8.570253

삼마르티니:
2개의 교향곡,
칸타타 '은혜를 모르는 예루살렘'
실비아 마렐리(sop)
미로슬라바 오르다노바(alto)
조르조 티보니(te)
심포니카 앙상블
다니엘레 페라리



8.660175-78

바그나:
지크프리트
존 프레드릭 웨스트(te)
볼프강 쉰(bass)
리사 개스틴(sop)
슈투트가르트 슈타츠오퍼
로타르 자그로세코



8.559450

우레 오페라의 명장면 2집
쉬프: (바보 잠멜),
지그마이스터: (호수의 여인),
와이스킬: (에스터)
여러 가수들
시애틀 심포니 외
제러드 슈워츠 외



8.111119

바흐 피아노 편곡집
에곤 페트리,
에드빈 피셔,
퍼시 그레이저,
빌헬름 쾰프,
레이 레브 외

Monthly

Aulos news

월간 아울로스 뉴스 | February 2007



New Release

한국인이 좋아하는 로망스 3집 **프로이카**

Artist of Kirkelig

노르웨이 바로크 기타 연주자 **롤프 리슬레반**

Cover Story

브람스 해석에 정열을 태우는 **마린 알소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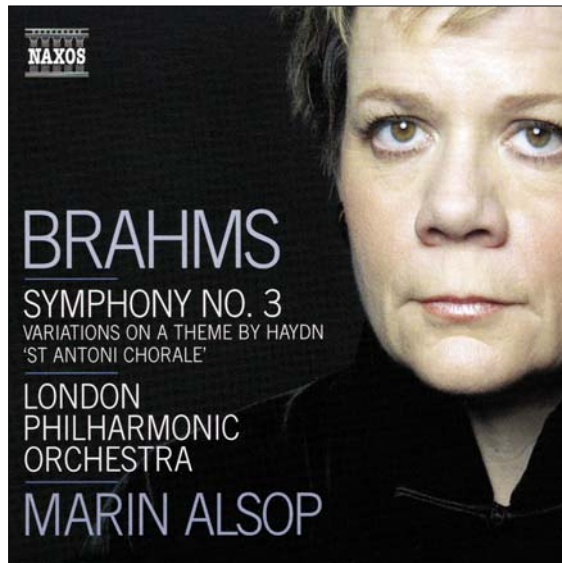
브람스 해석에 정열을 태우는 여성 지휘자

마린 알소프 Marin Alsop

권위 있는 클래식 음반지 그라모폰의 2003년 올해의 아티스트로 선정된 바 있는 미국의 여성 지휘자 마린 알소프. 2007년에는 그녀가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으로 출정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미국 메이저 오케스트라의 첫 수장, 그녀는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다. 사실 알소프는 우리 시대 가장 주목 받는 여성 지휘자이며, 거의 대부분인 남성 지휘자들과 비교해도 현재 매우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음악가임에는 틀림없다.

알소프는 1956년 뉴욕 맨해튼에서 음악가 부모한테서 태어났다. 예일 대학에 입학했으나 곧 음악에 대한 열정을 견디기 어려워 줄리아드 스쿨로 들어갔고 바이올린과 지휘 공부를 했다. 낙소스에서 나온 그녀의 번스타인 음반이 높은 평가를 받았던 일을 많이 기억하지만, 그녀는 번스타인의 제자이기도 했다. 1989년 탕글우드 음악센터에서 쿠세비츠키 지휘상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지휘활동에 돌입한 그녀는 1991년 캘리포니아의 카보릴로 음악축제의 음악 감독을 맡으면서 중요한 돌파구를 찾았고, 2002년부터는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직으로 옮겨 끊임없이 콘서트에 등장했다. 그녀가 남긴 명 녹음도 많다. 그녀와 함께한 세계 최고 악단들은 런던 심포니, 런던 필,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파리 오케스트라, 피츠버그 심포니, 도쿄 필하모닉, 암스테르담 로열 콘세르트헤보 오케스트라, 스위스 취리히 톤할레, 보스턴 심포니 등이다. 알소프는 물론 미국 악단의 수장이 되기 위한 기초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왔었다. 콜로라도 심포니 음악 감독으로 12년간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LA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는 객원지휘자로 등장해 정기적인 콘서트를 열었다. 그녀가 지휘한 세계적인 악단은 어렵잖아 30개가 넘는다.

최근 그녀가 크게 주목 받은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브람스 교향곡 사이클에 도전하여 좋은 결과를 내놓았던 일이다. 수준급의 교향곡 1번과 2번을 내놓더니 이번에는 3번까지 발표했다. 사실 브람스 교향곡 1번은



그녀의 회심작이었다. 셋별 같은 거장들의 각축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하지만 그녀는 부담감을 의욕으로 삼아 욕증하고 중후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운용하며 브람스의 영혼에 깊이 파고든 연주를 펼쳐줬다. 특히 아련한 2악장이 무척 아름다웠고, 함께 수록된 비극적 서곡, 대학축전 서곡도 대단히 훌륭했다. 교향곡 2번에서는 음악학자 라인홀트 브링크만의 '만년의 목가'란 연구결과에 주목했는지 '온화한 전원적' 프리즘을 통해서만 보려는 경향을 배제하고 브람스 음악에서 '전원' 보다는 어떤 슬픔을 찾고자 했다. 실제로 느리고 심각한 도입부의 현악기 선율이 저음부의 브라스 화음을 적절히 자극하면서 한없이 서글픈 느낌으로 승화되는 대목은 특히 인상적이다. 클라라 슈만이 첫 악장을 대하고 무척 슬펐다고 했고 작곡가 스스로도 어떤 '최후의 느낌' 같은 것을 갖고 했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알소프의 선택은 지극히 온당하다고 본다. 또 브람스 음악은 주선율의 아름다움 보다는 저음부의 선율에서 호소하는 힘 때문에 매료될 때가 많은데, 명석한 알소프는 당연히 저음부가 보다 명료하게 제 소리를 내도록 만드는데 주력했다. 물론 알소프 연주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관건이다. 그녀는 처음 브람

스 사이클에 도전하면서 해석의 지표를 '균형과 비례' 앞에 세우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녀는 어떤 옛 해석방법에 얽매이거나 어떤 혁신을 구가하려고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평가는 이 말에 절충주의자란 비난을 적용하려고 할지 모르겠으나 그녀는 당당하게 오해를 거부하고 '균형주의자'라는 용어로 바꿔 불러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 악구를 넘어갈 때보다 나긋나긋하고 살가운 앙상블을 들려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았지만 중후하고 웅혼한 기상을 내비치는 여러 섹션들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다. 자신의 개성을 숨긴 그녀의 해석방식은 같은 음반에 수록된 헝가리 무곡들을 통해서 더 실감나게 감지할 수 있었다. 많은 명지휘자들은 이 신나는 무곡들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한껏 피력하기를 바랐지만, 알소프한테서는 어떤 뚜렷한 개성을 파악하기 힘들다. 헝가리 무곡에 기대기보다는 브람스 악곡의 고전적 구조에 의지했다고나 할까? 런던 필에 대해 알소프가 자신과는 아주 잘 맞는 악단이라고 했던 것을 보면, 그런 연주결과에 본인은 상당히 흡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연주를 많이 들어왔던 비평가나 애호가들은 약간의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대체로 훌륭하지만 뭔가 최고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좋기는 하지만 (very good) 위대하지는 않다(not great)고 표현했다. 우리를 깊은 감동으로 안내했던 위대한 연주들을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지는 인색한 평가일 것 같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알소프의 연주는 대단히 뛰어난 편이다.

하지만 좋다. 이번 교향곡 3번을 들으면 그 생각도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다. 악곡의 특성이긴 하지만 1번에 비한다면 텍스처는 한결 가볍고 투명해졌고, 저음부 선율에(특히 그리듬에) 꽤 많은 신경을 써서 훨씬 브람스 음악다운 분위기를 낸 결과물을 만들었다. 중음역의 당진 선율도 세심하게 신경 쓰면서 다른 음역의 선율과의 속도를 정교하게 조율해나가는 솜씨는 실로 탁월하다. 브람스의 고독한 춤, 즉 대중적인 취

미로 사랑 받는 3악장도 충분히 슬프고 로맨틱하다. 첼로로 시작되는 유명한 주제 선율의 자연스러운 프레이징과 여운의 매혹은 톱클래스의 브람스 악단, 이를테면 빈 필이나 베를린 필의 그것을 위협할 정도다.

하지만 네 개 악장 가운데 가장 뛰어난 악곡을 고르라면 단연 4악장 피날레다. 육중한 런던 필을 아주 민첩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는 분명 앞의 두 작업보다 진보한 것이다. 팀파니의 존재감이나 긴장감은 자연스러우면서도 확실하다. 폭발적인 클라이맥스 악구에서도 투명함을 잃지 않는 악단 운용, 정말 흐뭇하다. 걱정이 식고 고요한 명상으로 마무리되는 종결부의 효과도 매혹적이다. 알소프가 연결해준 교향곡 2번의 커플링에 대해서 불만이었던 사람들은 이번 음반의 그것에는 크게 만족할 것 같다. 하이든 변주곡을 다뤘는데, 주제 선율을 주도하는 오보에 소리부터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다. 풍성하지만, 무겁지 않고 투명한 저음부의 선율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데, 특히 리듬에 대한 접근이 대단히 뛰어나서 고전형식의 아름다움이 매우 품격 높게 조감되어 있다.

알소프는 낙소스에서 감행하고 있는 자신의 브람스 작업의 결과에 모두 만족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분명히 그녀의 솜씨나 안목은 진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번 자교향곡 3번과 하이든 변주곡은 확실히 그 증거다. 이제 가장 인기 높은 브람스 교향곡 4번이 곧 나오게 될 텐데, 벌써부터 흥분을 가라앉히기 어려울 정도로 몹시 기다려진다. 브라보 마린!



마린 알소프의 브람스 교향곡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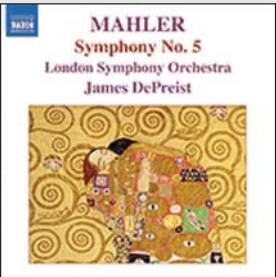
브람스:
Symphony No.1
London Philharmonic Orch.
8.557428



브람스:
Symphony No.2
London Philharmonic Orch.
8.557429



Naxos New Rele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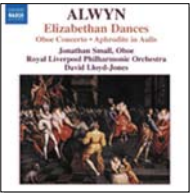


Naxos 8.557990

말러: 교향곡 5번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 제임스 드프리스트

전설적인 흑인 알토 마리안 앤더슨의 조카인 제임스 드프리스트는 지금까지 클래식 음악계에 등장했던 많지 않은 흑인 지휘자들 중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인물로 인정받고 있다. 장기간 오리건 심포니의 수장으로 활약했으며, 북유럽 일대에서도 상당한 명성을 확보했었다. 그의 레코딩 중에서는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들이 좋은 평가를 얻었었는데, 이번에는 다소 의외의 레퍼토리인 말러의 교향곡에 도전하였다. 그의 스케일 큰 연출과 명실상부한 영국 최고의 악단 런던 심포니의 뛰어난 합주력이 더해져 완성도 높은 결실을 만들어내었다.



Naxos 8.570144

올윈: 엘리자베스 시대의 춤곡, 오보에협주곡, 아올리스의 아프로디테 외

조나선 스몰(ob) / 로알 리버폴 필하모닉 / 데이빗 로이드-존스

낙소스에서 진행중인 윌리엄 올윈 시리즈의 다섯 번째 음반.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고풍스러움과 엘리자베스 2세 시대의 모던함을 절묘하게 매치한 인기작 엘리자베스 시대의 춤곡이 메인 레퍼토리.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에서 영감을 얻은 관현악곡 '마술의 섬', 잉글랜드 전원의 평화로운 풍광에 대한 작곡가의 찬가인 오보에협주곡, 이번에 최초로 녹음된 작품들인 잉글리시 서곡과 아올리스의 아프로디테 등등 작곡가의 세련된 오케스트레이션이 빛을 발하는 매력적인 관현악작품들이 함께 수록되었다.



Naxos 8.557704

콘골드: 캡틴 블러드, 영: 스카라무슈, 슈타이너: 삼총사, 로사: 왕의 도둑

포츠담 브란덴부르크 필하모닉 / 리처드 카우프만

할리우드의 고전 시대활극 4편의 음악을 담았다. 에릴 플린의 슈퍼스타로 등극시켰던 해적영화의 고전 <캡틴 블러드>의 음악을 맡은 이는 후기낭만음악의 전통을 전수받았던 빈 출신의 천재작곡가 에리히 콘골드. 1952년에 완성된 MGM의 활극 <스카라무슈>는 영화 <세인>의 음악으로 유명한 빅터 영이 음악을 맡았다. 1935년 작 <삼총사>의 음악을 맡은 이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킹콩>의 음악을 맡았던 막스 슈타이너. 마지막으로 1955년 작 <왕의 도둑>의 음악은 <벤허>, <퀴바디스>의 음악으로 유명한 헝가리 출신의 작곡가 미클로스 로사가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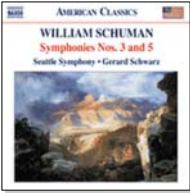


Naxos 8.559294

호바네스: 교향곡 60번 '애팔래치아산맥을 향해', 기타협주곡, 키리미안 하이릭

데이빗 레이즈너(guitar) / 라스 란치(tp) /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 제러드 슈워츠

아르메니아 혈통의 미국 작곡가 앨런 호바네스는 무려 70편 가량의 교향곡을 양산하였다. 교향곡 60번은 애플래치아 일대의 미국동부의 민요에 대한 작곡가의 애정을 담은 작품. 로맨틱한 악상 속에 기타의 기교적인 화려함을 담은 기타협주곡을 수록하였다. 작곡가 스스로 진정한 걸작이로 고백했던 <키리미안 하이릭>은 아르메니아의 영웅적인 사제의 이름을 타이틀로 내건 작품으로 작곡가의 또 다른 걸작인 <성 그레고리의 기도>를 연상케 하는 트럼펫의 낭랑한 독주가 인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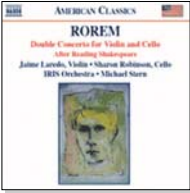


Naxos 8.559317

윌리엄 슈만: 교향곡 3번, 교향곡 5번, 주디스

시아틀 심포니 오케스트라 / 제러드 슈워츠

20세기 미국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의 한 사람인 윌리엄 슈만(1910-92)은 모두 10편의 교향곡을 남겼다. 교향곡 3번은 바로크 시대의 음악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으로, 각각의 악장은 파사칼리아와 푸가, 코랄과 토카타로 구성되었다. 현을 위한 교향곡은 번호 없이 출판되었으나, 작품 순으로 5번 교향곡으로 일컬어지는 작품. 대위법에 대한 작곡가의 재능과 리듬에 대한 뛰어난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 적장의 목을 벤 히브리 여걸의 유명한 이야기를 그린 무용곡 주디스가 함께 수록되었다.



Naxos 8.559316

로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협주곡, 셰익스피어를 읽은 뒤

제임 라레도(vn) / 사론 로빈슨(vc) / IRIS 오케스트라 / 마이클 스텐

현존 미국을 대표하는 작곡가인 네드 로렘은 전통적인 조성체계의 기반 위에 창의적인 시도를 추구했던 인물이다. 프랑스의 전통을 계승한 이중협주곡은 작곡가와 오랜 교류를 했던 라레도/로빈슨 부부를 위해 작곡한 작품으로 작곡가 자신은 '두 독주악기가 오케스트라의 자궁으로부터 벗어나 무대 위로 태어나는 과정'이라고 작품을 평했다. 무반주 첼로를 위한 모음곡인 '셰익스피어를 읽은 뒤'는 리어왕, 오텔로, 한여름 밤의 꿈 등의 작품들에 대한 인상을 첼로의 풍성한 소노리티를 빌어서 표현한 흥미로운 작품.



Naxos 8.557862

다울랜드: 류트 작품집 Vol.2 (라크리메 수록)

나이젤 노스(lute)

앤드류 맨츠, 존 톨과 더불어 결성했던 바로크 트리오 로마네스카의 맹활약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영국의 대표적인 류트주자 나이젤 노스가 낙소스에더 두 번째 다울랜드 음반을 선보였다. 다울랜드를 상징하는 멜랑콜리한 작품인 '라크리메', 유명한 류트송 I saw my lady weep을 노스가 류트 독주곡으로 편곡한 '다울랜드의 눈물', 작곡가의 자전적 작품인 'Semper Dowland Seper Dolen'(다울랜드는 항상 슬프다.) 등을 수록하였다.



Naxos 8.557819

하야사카: 피아노협주곡, D조의 서곡, 좌우의 옛 춤곡

히로미 오키다(pf) / 러시아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드미트리 야블론스키

후미오 하야사카(1914-55)는 쿠로사와 아키라의 명화 '7인의 사무라이'를 비롯한 100여 편의 영화음악을 맡았던 일본의 거물급 작곡가이며, 타케미즈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쇼팽과 라흐마니노프의 로만틱스타일로 작곡된 피아노협주곡. 일본의 궁중춤인 바가쿠로부터 영감을 얻은 옛 춤곡, 스트라빈스키를 연상케 하는 광포한 파위가 인상적인 D조의 서곡이 수록되었다.



Naxos 8.557839

오키: 교향곡 5번 '히로시마', 일본랩소디

뉴 재팬 필하모닉 / 타쿠오 유야사

1953년에 완성된 마사오 오키(1901-71)의 교향곡 5번은 제목 그대로 원폭이 투하된 히로시마의 비극을 음악적으로 묘사한 작품으로, 아르비드 얀손이나 스토코프스키와 같은 유명 지휘자들에 의해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 교향곡은 표현주의적인 대담한 불협화음과 일본의 전통극인 '노'의 고요하면서도 장엄한 음악을 반복적으로 교차시키면서 전쟁의 참화와 희생자들의 고통과 슬픔을 생생하게 그려내었다. 세계 최초 녹음.



Naxos 8.570151

슈만: 현악사중주 Op.41 Nos.1-3

파인아츠 현악사중주단

무려 140곡에 달하는 가곡을 작곡하면서 이른바 '가곡의 해' 라고 일컬어지는 1840년 이후 슈만은 다른 장르 쪽으로 관심을 돌렸다. 1842년 슈만은 현악사중주 3곡, 피아노오중주, 피아노사중주를 연이어 작곡하면서 그 해를 '실내악의 해' 로 만들어 놓았다. 베토벤의 후기사중주들과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사중주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슈만의 현악사중주들은 피아노가 수반되었던 작곡가의 다른 실내악들에 비해 지명도에서는 떨어지는 편이지만, 짙은 시적 감수성과 젊은 혈기를 음악적인 창의성으로 채워놓은 이 장르의 숨겨진 걸작들이라고 할 수 있다.



Naxos 8.557729

리바: 플루트사중주, 3개의 현악사중주

얀 오스트리(fl) / M. 노스티츠 현악사중주단

야콥 리바(1765-1815)는 고전시대에 활동했던 보헤미아의 작곡가. 그는 방대한 양의 작품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이 유실되고 말았다. 그가 작곡한 72곡의 사중주 중 현존하는 것은 음반에 수록된 볼과 4작품.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하이든이나 CPE 바흐의 영향이 느껴지는 매혹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작품들이다. 특히 D 단조 사중주의 첫 악장은 모차르트의 사중주 '불협화음'을 떠올리며, 마지막 스케르초는 멘델스존의 음악을 반세기 먼저 만나보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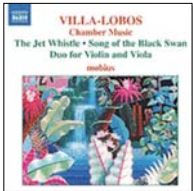
Naxos 8.557423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트리오 1번, 2번 '어느 위대한 예술가를 추억하며'

발레리 그로호브스키(pf) / 에두아르드 울프손(vn) / 드미트리 야블론스키(vc)

라흐마니노프가 작곡한 두 편의 피아노트리오는 21이전에 완성된 초기작 들임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감성이 배어나오는 개성적인 면모를 확연히 드러낸다. 도전적인 기교를 요구하는 피아노 파트와 빛나는 선율의 아름다운 장차 라흐마니노프가 어떤 스타일의 작곡가로 성장해 나갈 지를 예견하는 듯하다. 소나타 형식의 단일악장으로 구성된 1번은 특정 상황과 관련 없이 자신의 심성을 표현한 작품인데 반해, 유명한 2번은 바로 1893년 차이코프스키의 죽음이 직접적인 작곡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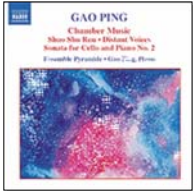


Naxos 8.557765

빌라로보스: 실내악작품집

모비우스

20세기 라틴 아메리카 음악계를 대표하는 인물인 브라질 작곡가 빌라로보스는 일생에 걸쳐서 다수의 실내악 작품을 남겼다. 1917년의 초기작인 '검은 백조의 노래'의 동경하는 듯한 매력에서부터 작곡가 최만년작의 하나인 플루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하프를 위한 오중주(1957)에 이르기까지 브라질의 광대한 자연만큼이나 다양한 음악적 미감을 담은 그의 실내악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이중주 중의 아다지오 는 작곡가가 남긴 가장 매혹적인 악장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Naxos 8.557678

가오 핑: 실내악 작품집(이야기꾼, 먼 목소리, 첼로소나타2번, 소비에트사랑노래)

가오 핑(pf) / 앙상블 피라미드

중국의 젊은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가오 핑(1970년생)은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하면서 중국의 민속음악과 전통시에 기반을 둔 독특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플루트, 오보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하프를 위한 모음곡인 '이야기꾼', 감성적인 피아노 독주곡 '먼 목소리', 노래하는 피아니스트를 위한 '2개의 소비에트 사랑노래' 등등 작곡가의 색다른 음악세계를 만나볼 수 있다. '소비에트 사랑노래'의 마지막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오마주로, 러시아 민요 '카슈샤'와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10번의 스케르초 악장의 단편을 차용한 작품.



Naxos 8.555849

브람스:

네 손을 위한 피아노음악 Vol.17
(피아노협주곡 1번 2대의 피아노 편곡)

질케-토라 마티스 & 크리스티안 코엔 (pf)

브람스는 보다 많은 대중들이 자신의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작품 대다수를 4손을 위한 피아노 편곡으로 남겨놓았다. 작곡가의 대표작의 하나인 피아노협주곡 1번 역시 이 과정을 거쳤는데, 브람스는 두 대의 피아노 버전과 피아노연탄 버전 2종류를 남겼다. 신보에 수록된 것은 두 대의 피아노 버전. 피아노연탄 버전은 8.554116으로 이미 발매된 바 있다. 브람스의 절친한 친구 요아힘의 관현악곡 데메트리우스 서곡에 대한 브람스의 편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Naxos 8.559205

크럼: 고래의 음성, 페데리코의 노래들, 가을의 11 메아리, 사생아를 위한 자장가

뉴 뮤직 콘서트 앙상블 / 로버트 애잇큰

조지 크럼의 매력적인 작품들은 그를 오늘날 가장 자주 작품이 연주되는 현존작곡가의 한 사람으로 만들었으며, 폴리처상과 2004년 올해의 미국작곡가상을 안겨주었다. 플루트, 첼로, 피아노를 위한 '고래의 음성'은 실제 고래의 노래에서 얻은 영감을 앰프를 통해 확장된 형태의 세 악기로 묘사한 작품. '페데리코의 노래는' 플루트와 하프 반주가 만들어내는 청량한 사운드에 기초한 색다른 형식의 가곡들. 다양한 타악기의 타격 음과 앰프를 통해 확장된 플루트의 기이한 사운드가 결합된 '사생아를 위한 자장가', 바이올린, 알토플루트, 클라리넷의 색다른 어울림으로 가을의 이미지를 그려낸 '가을의 11개의 메아리' 등 작곡가의 풍부한 음악적 상상력을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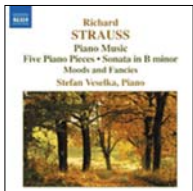


Naxos 8.559298

히던: 피아노트리오, 보이시스, 임프레션스

아키코 마이어스(vn) / 알리사 와일러스타인(vc) / 아담 네이먼(pf) / 사이프러스 사중주단 외

미국 여류작곡가 제니퍼 히던(1962년생)의 음악철학은 단순하다. 그의 음악적 목표는 전문적인 연주자들뿐만 아니라 클래식음악초심자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클래식마니아들에 이르는 모든 감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것이다. 피아노트리오에서 작곡가는 소리와 색깔의 상관관계를 표현하고자 시도하였다. 현악사중주를 위한 '보이시스'는 교묘에서 흥분에 이르는 심상의 변화를 표현하였고, 역시 현악사중주를 위한 '임프레션스'는 작곡가의 창조적 영감이 되어왔던 인상파화가들의 작품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Naxos 8.557713

R 슈트라우스: 피아노작품집(소나타 B단조, 5개의 피아노소품, 기분과 상상)

슈테판 베셀카(pf)

교향시, 오페라, 가곡 작곡가로 유명한 R 슈트라우스이지만, 그는 젊어서 뛰어난 피아니스트로 명성을 얻기도 했었다. 본 음반의 수록곡들은 학창시절을 마감하던 즈음에 완성된 것들로, 보수적인 화성체계 위에 멘델스존, 브람스, 슈만 등의 선배작곡가들의 영향을 고스란히 담아낸 작품들이다. 특히 로맨틱한 정서로 가득한 피아노 모음곡 '기분과 상상'의 4번째 곡인 '트로이메랄이'는 같은 제목의 슈만의 유명작에 뒤지지 않는 매력적인 서정미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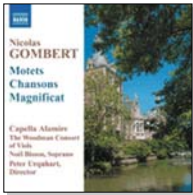
Naxos 8.557630

가르비주: 피아노작품집

(바스크춤곡, 4개의 바스크전주곡, 바스크 민요와 춤, 아우레스쿠)

알바로 세도아(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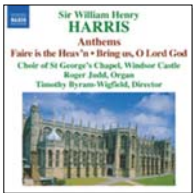
바스크 출신의 작곡가 토마스 가르비주는 교향의 민속음악과 그레고리안 찬트로부터 음악적 영감을 얻은 작곡가다. 스페인의 지배 하에서도 곳곳한 자긍심으로 지켜져 내려온 바스크의 독특한 음악적 전통을 이 음반의 수록곡들을 통해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Naxos 8.570180



Naxos 8.5579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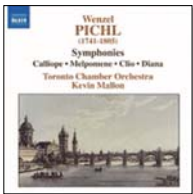
Naxos 8.570148



Naxos 8.557245



Naxos 8.559445



Naxos 8.557761

공베르: 모테트와 상송, 그리고 마그니피카트

카멜라 알라미레 / 우드맨 콘소트 오브 비올스 / 피터 어커하르트

조스캥의 제자로 추정되는 니콜라스 공베르(1495년경-1560년경)는 활동기의 대부분을 샤를 5세의 궁정에서 보내었다. 그는 조스캥과 팔레스트리나의 중간시대를 대표하는 거장이었으며, 여느 플랑드르 출신의 거장들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조직화된 폴리포니에 정통한 작곡가였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4성부의 마그니피카트를 비롯하여, 종교 모테트와 세속 상송을 골고루 수록한 음반.

마이어: 극적 칸타타 <라르모니아>, 베토벤의 죽음을 기리는 칸타타

솔리스트들 / 시몬 마이어 합창단 / 잉골슈타트 그루지안 체임버 / 프란츠 하옥

바이에른 출신의 작곡가 시몬 마이어(1763-1845)는 빈 고전양식을 북 이탈리아에 전파했던 주요한 인물이었다. 그의 칸타타는 빈의 양식미에 이탈리아의 선율미를 적절히 결합시킨 것들로, 그중 <라르모니아>는 황제의 방문을 기리기 위한 의전용의 화려한 작품. 베토벤의 죽음을 추모하는 칸타타는 제복 그대로 전원 교향곡, 웰링턴의 승리, 감람산의 그리스도 등의 베토벤 작품의 단편을 삽입하여 위대한 작곡가의 죽음을 추도한 흥미로운 작품이다.

해리스: 앤섬

원저 성 세인트 조지 채플 합창단 / 티모시 바이람-윌필드

윌리엄 헨리 해리스(1883-1973)는 1933년부터 1961년까지 세인트 조지 채플의 오르가니스트로 활약했던 인물이다. 그는 긴 재임기간동안 여러 편의 오르간작품과 성공회 교회음악을 작곡했는데, 그 중 일부 작품은 프롬스 등을 통해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본 음반에는 3편의 최초 녹음 작품들과 더불어 작곡가의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이자 20세기 영국교회음악의 최고봉과도 같은 작품들인 Faire is the Heaven, Bring us O Lord이 수록되었다.

부조니: 가곡집(괴테 리트, 가수의 기쁨, 히브리 리트 외)

마틴 브룬스(bar) / 올리히 아이젠로어(pf)

부조니는 후기낭만시대를 대표하는 피아노 비르투오조로 유명하나 오페라와 가곡과 같은 성악장르에도 주목할 만한 활동을 보였었다. 그의 가곡은 독일의 불프와 마찬가지로 후기낭만주의적인 서법에 충실한 대단히 감성적인 특징을 보여주며, 이탈리아인 특유의 뛰어난 선율감각과 피아노 대가다운 화려한 피아노 반주가 접목되어 가곡 장르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위상을 만들어 내었다. '가수의 기쁨', '로시니 회상', 4곡의 '엘범 보칼레'는 최초 녹음되는 작품들이다.

기쁨과 슬픔의 시편들 (글래스, 왁스맨, 와이너, 드력맨, 록버그 외)

여러 아티스트들

구약의 시편은 유대교 종교음악의 근간이 되는 텍스트였다. 본 음반에는 미국에서 활동했던 여러 유대계 작곡가들이 작곡한 시편 가사의 종교적 합창곡들이 수록되었다. 필립 글래스의 미니멀한 시편 126편, 와이너의 시편 96편, 왁스맨의 시편 23편, 질베츠의 시편 137편 등등 저마다의 독특한 음악적 서법과 개성으로 빛어낸 다양한 스타일의 합창곡들을 만날 수 있다.

피홀: 교향곡 (칼리오페, 클리오, 다이아나, 멜포메네)

토론토 체임버 오케스트라 / 케빈 말론

낙소스가 자랑하는 18세기 교향곡 시리즈의 최신작. 작곡가 디터스도르프의 친구였던 벤첼 피홀(1741-1805)은 자신 역시도 당대의 인기 작곡가로서 명성을 누렸었다. 음반에 수록된 네 편의 교향곡은 모두 1760년대에 완성된 것들로, 각 작품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네 여신들을 하나씩 표제로 삼고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 달과 사랑의 여신인 다이아나, 그리고 아홉 명의 뮤즈들 중에서 서사시와 웅변을 맡은 칼리오페, 비극을 맡은 멜포메네, 그리고 역사시를 맡은 클리오 세 명이 각각의 작품들에 인용되었다.



Naxos 8.557430

브람스:

교향곡 3번, 하이든 주제에 의한 변주곡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마린 알소프

대서양 양단을 오가며 음악계의 우먼파워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마린 알소프. 본머스 심포니에 이어서 볼티모어 심포니의 차기 음악감독으로 임명되면서 성별을 초월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녀는 낙소스가 자랑하는 간판급 지휘자이기도 하다. 알소프가 진행 중인 브람스 교향곡 사이클의 세 번째 음반이 출시되었다. 교향곡 3번은 일명 브람스의 영웅교향곡이라고 불릴 정도로 당당한 스케일과 호쾌한 박력이 돋보이지만, 2,3악장에서의 감미로운 선율미 역시도 각별한 작품이다. 작곡가의 인기 관현악의 하나인 하이든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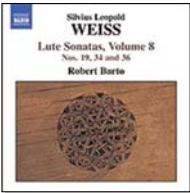


Naxos 8.570035

보논치니 & 가스파리니: 미레나와 플로로, 사리: 모스케타와 그물로

더 코믹 인터메조 오케스트라 / 페터 판 데 그라프 & 캐틀린 판 데 그라프

18세기 이탈리아에서 유행하던 코믹 인터메조는 오페라 세리아의 막간을 이용해서 상연되던 대중적인 성격의 가벼운 작품들이었다. 음반에 수록된 두 작품은 이러한 장르의 특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작품들이다. '모스케타와 그물로'는 거의 잊혀지다시피한 나폴리 작곡가 도메니코 사리의 작품. '미레나와 플로로'는 런던에서 헨델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조반니 보논치니와 당대를 대표하는 일급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였던 프란체스코 가스파리니가 함께 힘을 모아서 완성한 작품이다.



Naxos 8.570109

바이스: 류트 작품집 Vol.8 (소나타 19, 34, 36번)

로베르트 바르토 (baroque lute)

바흐와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난 바이스는 독일 바로크의 주요 작곡가임과 동시에 유럽 전체를 대표하는 일급 류트연주자였다. 바이스 시리즈의 여덟 번째 음반인 이번 신보에 수록된 세 편의 소나타는 전형적인 바로크 춤곡 모음곡의 외형을 갖추고 있다. 특히 34번 소나타는 작곡가의 소나타 중 가장 유명한 작품. 이 시리즈를 통해 최고의 바이스 스페셜리스트로 급부상한 로베르트 바르토의 안정된 연주력이 이전 음반들에서와 동일한 감동을 안겨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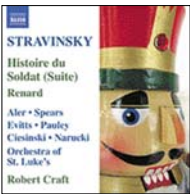


Naxos 8.559325

필립 글래스: 영웅들(Heros) 교향곡, 빛(The Light)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 마린 알소프

히어로즈 교향곡은 미니멀리즘의 대가 필립 글래스가 팝 아티스트 데이빗 보위와 브라이언 이노의 글램록 음반의 고전인 'Heros'를 토대로 완성한 독특한 성격의 교향곡이다. 교향곡을 구성하고 있는 여섯 개의 악장은 서로 독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각각은 개별의 작품으로도 연주가능하다. 락과 클래식의 색다른 만남을 이 작품을 통해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빛'은 광속을 측정하기위한 미켈슨과 물리의 물리학 실험을 소재로 삼은 이색적인 작품.



Naxos 8.557505

스트라빈스카:

병사의 이야기, 불가의 배 끄는 이들의 노래, 러시아 스케르초, 피카소를 위하여 외

여러 음악가들 /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 외 / 로버트 크래프트

스트라빈스키와 쇤베르크의 애제자였던 로버트 크래프트. 그가 지휘하는 두 작곡가의 작품은 확고한 신뢰감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하다. 이 음반은 불새 이전의 초기작에서부터 만년의 무조적인 작품들에 이르기까지 스트라빈스키가 남긴 다양한 성격의 소품들을 망라하고 있다. 음악극 '병사들의 이야기'와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잉글리시 혼의 다양한 음색을 활용한 '파스토랄', 유명한 러시아 민요를 토대로 한 편곡작품 등 대작들에서 미처 드러나지 않던 작곡가의 또 다른 매력들을 만나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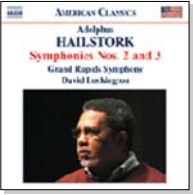


Naxos 8.557847

리스트: 교향시 (헝가리아, 영웅 추모, 타소 비탄과 승리)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 미카엘 할라스

리스트는 회화나 문학작품들에서 받은 예술적 영감을 토대로 13편의 교향시를 완성하였다. 교향시 9번 '헝가리아'는 1848년에 있었던 헝가리인들의 독립투쟁에 대한 작곡가의 애국적인 반응을 표현한 작품. 8번 '영웅 추모'는 전쟁이나 학살을 통해 희생된 수많은 용감한 이들의 무덤에 바쳐진 추모의 작품이다. 초기작인 2번 '타소'는 16세기의 유명한 이탈리아 시인 타소의 비극적인 운명을 소재로 완성한 작품이다.



Naxos 8.559295

헤일스토크: 교향곡 2,3번

그랜드래피즈 심포니 오케스트라 / 데이빗 락킹턴

버지니아 노포크 소재의 올드 도미니언 대학교수인 흑인작곡가 아돌푸스 헤일스토크(1941년생)는 지금까지 3편의 교향곡을 완성하였다. 2번 교향곡은 아프리카를 방문했을 때의 받았던 영감을 표현한 작품. 이 땅에서 신대륙으로 잡혀왔던 흑인노예들의 고통과 비극을 작품의 내면에 담았다. 3번은 신보의 연주자들이 데이빗 락킹턴과 그랜드래피즈 교향악단에 헌정된 작품으로 2번에 비해 가볍고 대중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Naxos 8.557703

킬라르: 영화음악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 죽음과 소녀, 최후의 왕, 묵주의 구슬들, 왕관의 진주)

크라코프 필하모닉 합창단 / 폴란드 국립 방송교향악단 / 안토니 비트

보이지에흐 킬라르는 작곡 폴란드의 전통음악에 기초한 감성적인 작품들로 호평을 받고 있는 작곡가다. 그는 다수의 영화음악에도 참여하였는데,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게릭 올드먼이 출연했던 프란시스 코폴라 감독의 '드라큘라'다. 작곡가 특유의 중세풍의 신비감이 영화의 그로테스크한 배경과 절묘한 조화를 만들어낸다. 가장 로만 폴라츠키의 '죽음과 소녀'에서는 쇼스타코비치 풍의 공격적인 악상과 이와 대비되는 아름다운 사랑의 테마가 인상적이다. 중세 예언자를 다룬 '최후의 왕' 역시 구레즈키를 닮은 복고풍 서법이 멋진 효과를 발휘한다.



Naxos 8.570195

보리스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1번, 숲의 속삭임, 무도회가 끝난 뒤

볼고그라드 필하모닉 / 에드워드 세로프 & 사라토프 음악원 교향악단 / 키릴 에르쇼프

보리스 차이코프스키(1925-96)는 20세기 후반기의 러시아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의 한 사람이다. 1947년에 완성된 교향곡 1번은 쇼스타코비치의 영향을 확연히 드러낸 작품. 풍부한 색채감이 돋보이는 작품인 '숲의 속삭임'은 한동안 분실된 상태였으나, 최근 보리스 차이코프스키 협회의 노력을 통해 재발견된 것. 톨스토이의 동명 단편에 기초한 '무도회가 끝난 뒤'에서는 같은 이름의 선배작곡가를 연상케 하는 화려한 복고풍 왈츠가 단연 돋보인다.



Naxos 8.570033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클레어 러터(sop), 톨 랜들(te), 마르쿠스 아이혜(bar),

본머스 심포니와 합창단 / 마린 알소프

마린 알소프가 오르프의 대표적인 걸작이자, 20세기에 완성된 가장 유명한 합창곡의 하나인 〈카르미나 부라나〉에 도전하였다. 중세의 무명가객들이 남긴 세속적인 노래들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편곡한 이 작품은 생동감 넘치는 리듬과 군더더기 없는 진솔한 서법을 통해 초연 직후부터 지금까지 유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작품의 시작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대합창곡 '오 행운의 여신이여'는 영화 〈엑스칼리버〉와 각종 CF 및 방송배경음악으로 너무나 친숙해진 작품이다.



Naxos 8.570073

타바코프: 2대의 플루트를 위한 협주곡, 피아노협주곡

패트릭 갈르와, 필립 베르놀트(fl), 장 필립 콜라르(pf), 빌켄트 심포니 / 에밀 타바코프

불가리아의 국보급 작곡가 에밀 타바코프는 작곡가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피아노협주곡은 터키군의 위촉으로 작곡된 작품답게 호전적인 공격성과 이국적인 색채가 지배하는 작품. EMI를 통해 수많은 명반을 낳았던 명피아니스트 장 필립 콜라르가 독주를 맡았다. 패트릭 갈르와의 위촉으로 작곡된 플루트협주곡 마라카스, 탭버린, 불가리아 전통 북 등의 다양한 타악기를 활용한 독특한 오케스트레이션이 인상적이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두 플루티스트 패트릭 갈르와와 필립 베르놀트가 호흡을 맞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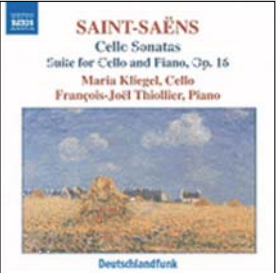
Naxos 8.570244

드보르작: 현을 위한 세레나데 (관악편곡), 콜그래스: 나굴의 바람,

림스키코르사코프: 왕벌의 비행 외

오하이오 주립대학 윈드 심포니 / 러셀 C 메켈슨

이 음반에 수록된 드보르작의 세레나데는 관악기를 위한 Op.44가 아니라 유명한 현을 위한 세레나데 Op.22를 지휘자 메켈슨이 관악앙상블을 위해 편곡한 것이다. 친근한 이 작품이 연주매체의 변화를 통해 또 다른 참신한 이미지로 다가온다. 인디언 마법사의 이야기에서 소재를 얻은 콜그래스의 토속적인 색채의 작품 '나굴의 바람'과 찬송가에 기초한 길링엄의 작품 'No Shadow of turning'도 색다른 미감의 작품들이다. 단원들의 개인기를 맘껏 발산하게끔 배려된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왕벌의 비행'의 색다른 편곡 역시도 흥미롭다.



Naxos 8.557880

생상:

첼로소나타 1,2번,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Op.16

마리아 클리켈(vc) / 프랑소와-요엘 티올리에르(pf)

생상의 첼로협주곡 1번은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작품인 반면, 그가 남긴 첼로소나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왔다. 첼로와 피아노의 저음역을 적극 활용하여 격정적인 악상을 펼쳐나가는 소나타 1번은 1870년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퇴한 이후에 받은 분노를 표현한 작품. 30년이 지난 이후에 작곡한 소나타 2번은 감성적면이 돋보인다. 작곡가 스스로 '이 작품의 아다지오는 듣는 이의 눈물을 이끌어 낼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고 한다. 작년 내한공연에서 국내애호가들을 열광시켰던 낙소스의 간판 첼리스트 마리아 클리켈의 최신보.



Naxos 8.557934

클라크: 비올라소나타, 프렐류드, 알레그로와 전원곡, 중국 퍼즐, 자장가, 파사칼리아 외

필립 듀크스(va), 다니엘 호프(vn), 소피아 리만(pf), 로버트 플랜(cl)

영국을 대표하는 여류 작곡가였던 레베카 클라크(1886-1979)는 본윌리엄스와 더불어 영국 인상주의 계보를 형성했던 인물이다. 생전에는 작품의 대부분을 출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으나, 탄생 90주년이던 1979년을 계기로 이 작곡가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열정적인 비올라 소나타는 이 작곡가의 대표작의 하나로 포스트 로맨틱 사조를 반영하는 반면, 프렐류드, 알레그로와 전원곡에서는 스트라빈스키 풍의 신고전주의를 추구하였다.



Naxos 8.555065

파야: 피아노음악

(야상곡, 세레나타, 드뷔시 오마주, 폴 듀카의 무덤, 스페인 소품, 사랑은 미술사)

다니엘 리고리오(pf)

마누엘 파야는 오페라와 여러 발레음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작곡가이지만, 피아노음악 분야에서도 알베니스, 그라나도스 등에 버금가는 업적을 남겼다. 본 음반은 파야 피아노 음악시리즈의 첫 음반으로 야상곡, 세레나타, 안달루사 세레나타 등의 민속적인 색채와 낭만적인 정취의 초기작들과 작곡가의 대표작인 발레 '사랑은 미술사'에 대한 피아노 편곡을 함께 수록하였다. 스페인 음악계의 기대로 부상중인 다니엘 리고리오가 연주를 맡았다.



Naxos 8.557823

뒤티외: 피아노작품전곡
(소나타, 3개의 전주곡, 바흐 오마주, 에튀드, 검은 새, 공명 외)

존 첸(pf)

프랑스의 위대한 현대작곡가 앙리 뒤티외의 피아노 작품 전곡을 수록한 음반. 이 악기를 위해 남긴 작품의 수는 많지 않으나, 그의 유일한 소나타는 2차 대전 이후에 완성된 가장 우수한 프랑스 피아노소나타의 하나로 손꼽히는 대작이다. 18세의 나이로 2004년 시드니 국제 콩쿠르를 석권했던 말레이시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존 첸의 나소스 데뷔 레코딩.



Naxos 8.570253

삼마르티니: 2개의 교향곡, 칸타타 ‘은혜를 모르는 예루살렘’

실비아 마펠리(sop), 미로슬라바 요르다노바(alt), 조르조 티보니(te) / 심포니카 앙상블 / 다니엘레 페라리

18세기 밀라노 등지에서 활약했던 삼마르티니는 초기 고전양식의 정립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교향곡, 현악 사중주, 독주협주곡 등등 대부분의 고전 장르에 걸쳐서 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종교합창곡 분야에서도 큰 업적을 남겼다. 신보에 수록된 두 교향곡은 극음악의 일부에서 독립 악곡으로 막 전환하던 시기의 아직 틀이 잡히지 못했던 면모를 보여주며, 칸타타 ‘예루살렘’은 이탈리아 칸타타 특유의 화려하고도 선율적인 성악파트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Naxos 8.660175-78

바그너: 지크프리트

존 프레드릭 웨스트(te), 볼프강 쉰(bass), 리사 개스틴(sop) 슈투트가르트 슈타츠오퍼 / 로타르 자그로세크

바그너가 완성한 거대한 스케일의 4부작 ‘니벨룽의 반지’ 중 세 번째 작품인 ‘지크프리트’. 철없는 개구쟁이 소년이 신들의 운명을 바꿔놓을 위대한 영웅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이 작곡가 특유의 목직한 관현악법과 드라마틱한 악상을 토대로 펼쳐진다. 영상물로도 크게 호평을 얻었던 슈투트가르트 슈타츠오퍼의 2003년 프로덕션을 옮긴 것으로, 현존 최고의 바그너 소프라노를 각광받고 있는 리사 개스텐이 브뤼헨데로 맹활약을 펼친다.



Naxos 8.559450

유태 오페라의 명장면 2집 (쉬프: <바보 짐펠>, 지그마이스터: <호수의 여인>, 와이스갈: <에스터>)

여러 가수들 / 시애틀 심포니 외 / 제러드 슈워츠 외

버나드 말라무드와 노벨 수상자 아이작 싱어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유태작가들이다. 동유럽 마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담은 쉬프의 <바보 짐펠>은 바로 싱어의 작품을 토대로 만든 오페라. 지그마이스터의 <호수의 여인>은 말라무드의 작품에 기초하였다. 구약에 기초한 와이스갈의 <에스터>는 90년대에 완성된 가장 중요한 미국 오페라로 평가받았던 걸작이다.



Naxos 8.570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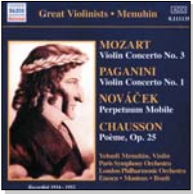
부조니: 피아노음악
(바흐 아디지오와 푸가 BWV564 편곡, 인디언 일기 1권, 발레장면들 외)

볼프 하텐 (pf)

세기 전환기의 대표적인 피아노 비르투오조이자 작곡가였던 페루치오 부조니. 그의 창작활동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것은 바흐의 작품들이었다. 그는 수많은 바흐의 오르간 작품들을 피아노를 위해 편곡하였는데, 신보에 수록된 BWV 564역시 바흐의 작품과 피아노라는 악기의 특성에 대한 부조니의 깊은 안목이 발휘된 편곡이다. 그 외에도 슈트라우스에 대한 오마주라고 할 수 있는 Tanzwalzer, 미국 방문 때 경험을 바탕으로 인디언 음악의 리듬과 선율을 차용한 ‘인디언 일기’ 등 흥미로운 피아노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Naxos Historical, Jazz Legends



Naxos 8.111135

모차르트: 바이올린협주곡 3번, 파가니니: 바이올린협주곡 1번
쇼송: 시곡, 노바첵: 무궁동

에후디 메뉴인(vn) / 파리 심포니 / 조르지 에네스쿠 & 피에르 몽퇴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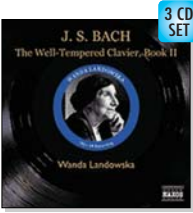
메뉴인이 18살에 녹음했던 파가니니의 협주곡 1번은 이 작품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젊은 신동의 재기는 피에르 몽퇴의 노련함과 어우러져 단순한 기교의 장과도 같았던 이 작품에 높은 음악성을 부여하였던 것이다. 일 년 뒤 녹음인 모차르트의 협주곡역시 젊은 연주자의 신선함이 잘 드러난 수연.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에네스쿠가 지휘를 맡은 점이 이채롭다. 1952년 애드리안 볼트/런던 필과 협연한 쇼송의 시곡은 최초로 CD로 선보이는 음원이다.



Naxos 8.111100

엘리자베트 슈만: 모차르트와 빈 오페레타 아리아 레코딩 (1926~38년 녹음)

1919년에서 38년까지 빈 국립오페라의 히로인으로 활약했던 슈만은 모차르트에서 바그너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였었다. 슈만의 깨끗한 은빛 음성과 천부적인 재능은 당시 관객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았었다. 본 음반에는 모차르트의 엑술라테 유빌라테 이외에도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중의 유명 아리아들, 슈트라우스의 박쥐, 첼러, 치에러, 베르테 등의 빈 오페레타에서 발췌한 흥겨운 아리아들이 수록되었다. 전형적인 빈 스타일의 가수였던 엘리자베트 슈만의 매력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음반.



Naxos 8.111061-63

JS 바흐: 평균율 클라비어 2권, 프렐류드와 푸가 그리고 알레그로 BWV998

완다 란도프스카(cemb)

박물관 속의 하프시코드에게 새로운 절정기를 선사했던 선각자 중 한 사람인 란도프스카. 이 평균율을 바흐의 사망 200주기를 기념하여 녹음된 것으로, 이 위대한 건반연주자의 심원한 예술적 깊이가 느껴지는 노작이다. 비록 개량식 악기를 이용한 연주이지만, 반세기 이전에도 이토록 신선한 생명력을 지닌 연주가 가능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1951~54년 녹음. 1946년에 녹음된 프렐류드와 푸가, 알레그로 BWV998이 부록으로 수록되었다.



Naxos 8.111132-34

베르디: 돈 카를로 (1954년 녹음)

보리스 크리스토프(필립) / 마리오 필리페스키(돈 카를로) / 티토 고펜(로드리고) / 안토니에타 스텔라(엘리자베타) / 로마 오페라 / 가브리엘레 산티니

오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남성 저음가수 두 사람의 불꽃 튀는 대결을 담은 돈 카를로 디스코그래피 중의 최고봉. 또한 이 음반은 이 작품의 1884년 버전에 대한 최초 녹음이라는 역사성 또한 가지고 있다. 보리스 크리스토프와 티토 고펜이라는 거대한 두 이름 외에도 칼라스의 좋은 파트너이기도 했던 20세기 중반의 위대한 테너 마리오 필리페스키, 세라핀의 사랑을 받았던 명 소프라노 안토니에타 스텔라가 참여하였다.



Naxos 8.111119

바흐 피아노 편곡집

에곤 페트리, 에드빈 피셔, 퍼시 그레인저, 빌헬름 켐프, 레이 레브 외

피아노로 연주한 바흐의 아름다운 선율들.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왕들은 편히 풀을 뜯고’와 같은 친근한 선율에서 엄격한 오르간 작품들에 이르기까지 옛 거장들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바흐의 다양한 면모가 흥미롭다.



Naxos 8.111242-43

베르디: 리골레토

마리아 칼라스, 티토 곱비, 주제페 디 스테파노 외 / 라 스칼라 오페라 / 톨리오 세라핀

1955년에 녹음된 이 음원은 전무후무한 가장 위대한 '리골레토' 레코딩으로 손꼽혀왔다. 티토 곱비, 마리아 칼라스, 주제페 디 스테파노로 이어지는 무적의 삼각편대와 거장 톨리오 세라핀의 노련한 지휘가 만들어낸 '리골레토'의 상징과도 같은 이 음반이 마크 오버트 손의 뛰어난 복각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Naxos 8.111240-41

베르디: 아이다

마리아 칼라스, 리처드 터커, 페도라 바르비에리, 티토 곱비 / 라 스칼라 오페라 / 톨리오 세라핀

아이다는 노르마, 비올레타, 루치아에 비해 칼라스가 맡았던 배역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온 역할이었다. 하지만 1955년에 녹음된 이 음원은 그가 노래하는 아이다 역시 출중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리처드 터커, 티토 곱비, 페도라 바르비에리로 이어지는 화려한 출연진과 거장 톨리오 세라핀의 지휘가 위대한 오페라에 걸맞은 위대한 연주를 만들어내었다.



Naxos 8.111239

로리츠 멜히오르의 예술 (1946-47년 아메리칸 레코딩)

팔리아치, 토스카의 아리아들, 마티나타, 아베마리아, 돌아오라 소렌토로, 고요한 밤 외

위대한 헬덴 테너 멜히오르가 노래하는 일종의 크로스오버 음반. 할리우드에 진출하는 등 미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시절에 남긴 녹음이다. 오페라 아리아들은 물론, 제롬 건과 클 포터의 파플러 송, 나폴리 민요, 캐럴 등을 망라하는 이 가수의 폭넓은 레퍼토리를 실감하게 된다.



Naxos 8.111070

데니스 브레인의 예술 (모차르트: 호른협주곡 1-4번, 호른 오중주)

데니스 브레인(hr) / 필하모니아 /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필하모니아 관악앙상블 / 발터 기제킹(pf)

올해로 사망 50주기가 되는 데니스 브레인. 아직도 그의 명성을 능가하는 호른연주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카라얀이 반주를 맡았던 모차르트의 협주곡 시리즈는 이 연주자의 상징과도 같은 녹음. 마크 오버트 손의 뛰어난 복각을 통해 거듭났다. 더불어 1955년 발터 기제킹과 호흡을 맞추었던 같은 작곡가의 오중주도 함께 수록되었다.



Naxos 8.111238

모차르트: 클라리넷 오중주, 피아노 사중주 1,2번

베니 굿맨(cl), 조지 셀(pf) / 부다페스트 사중주단

스윙의 제왕 베니 굿맨은 클래식 분야에서도 훌륭한 성과물들을 여럿 만들어내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다페스트 사중주단과 협연했던 모차르트 클라리넷 오중주. 1938년 뉴욕에서 있었던 녹음이다. 같은 작곡가의 피아노 사중주들에서는 지휘자가 아닌 피아니스트로서의 조지 셀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역시 부다페스트 사중주단과 함께 한 것으로 1946년의 녹음들이다.



Naxos 8.505219

베토벤-리스트: 교향곡 1-9번 (피아노 버전)

콘스탄틴 세르바코프 (pf)

낙소스의 간판 피아니스트 콘스탄틴 세르바코프가 최근 완결한 리스트 편곡의 베토벤 교향곡 전집이 박스세트로도 출시되었습니다. 종이박스 안에 낱장발매와 동일한 주얼 케이스 음반 5장이 들어있는 패키지 형태. 가격은 낱장 5장을 합한 가격과 동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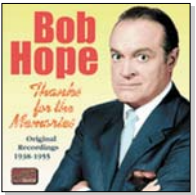


Naxos 8.120812

Duke Ellington Vol.12 <Blue Abandon>

1946년 라디오 녹음과 콘서트 레코딩

A Flower is a Lovesome Thing / Blue Abandon / Crosstown / Deep South Suite / Double Ruff / Fickle Fling / Hey, Baby / Magenta Haze / Moon Mist / Sono / The Eighth Veil / The Mooche / The Suburbanite / The Unbooted Character / Tip Toe Topic



Naxos 8.120836

Bob Hope: Thanks for the Memories

Anchorage Monologue from Chesterfield program, Anchorage, Alaska / Blind Date / Bob Hope Broadcasts to the U.S. Marine Corps from Camp Pendleton, California / Bob Hope Broadcasts to the U.S. Navy from Great Lakes Naval Training Station, Chicago, Illinois / Bob Hope introduces Lucky Us / Fancy Pants: Home Cookin' / My Favorite Brunette / Paleface: Buttons and Bows / Road to Morocco: Road to Morocco / Road to Morocco: Road to Morocco [excerpts from radio preview] / Road to Utopia: Put it there Pal / Some like it Hot: The Lady's in Love with You / Son of Paleface: Wing Ding / Sonny Boy / The 7 Little Foyes: Chinatown, My Chinatown / The 7 Little Foyes: I'm Tired / The 7 Little Foyes: Nobody / The Big Broadcast of 1938: Thanks for the Memory [radio preview] / The Great Lover: Lucky Us



Naxos 8.120817

루이 암스트롱 : Stop playing those blues (1946-47 recording)

A Song Was Born / Ain't Misbehavin' / Back O' Town Blues / Blues For Yesterday / Blues in the South / Do You Know What It Means To Miss New Orleans / Endie / Fifty-Fifty Blues / I Want A Little Girl / Jack-Armstrong Blues / Mahogany Hall Stomp / Pennies From Heaven / Please Stop Playing Those Blues / Rockin' Chair / Save It, Pretty Mama / St. James Infirmary / Sugar / Where The Blues Were Born In New Orleans



Naxos 8.120845

콜 포터의 뮤지컬과 영화음악: 칸강, 멕시코 헤이라이드, 해적

50년대 미국대중음악계를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브로드웨이의 대부였던 콜 포터의 뮤지컬 두 편과 영화 <해적>의 사운드 트랙을 담았다. <칸강>은 1953년 브로드웨이 오리지널 캐스팅의 녹음. <멕시코 헤이라이드> 역시 1944년 브로드웨이 오리지널 캐스팅의 녹음이다. 1948년 영화 <해적>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는 주디 갈란드와 진 켈 리가 참여하였다.



www.naxos.com

Marco Polo



Naxos 8.225286

J 슈트라우스 1세 에디션 Vol.10

슬로박 신포니에타 칠리나 / 에른스트 매르첸도르퍼

1820년대부터 1849년 사망할 때까지 요한 슈트라우스 1세는 빈 무도음악계 최고의 작곡가 겸 연주자로 군림했었다. 이 음반은 유명한 '대관식 왈츠'를 비롯, 호른 솔로가 인상적인 '고향소리', 파리에서 막 빈에 전해진 춤곡 스타일을 차용한 화려한 작품인 '빈 카니발 쿼드랄' 등등 그가 1830년대에 완성한 작품들을 중점적으로 수록하였다.



www.dacapo-records.dk

DACAPO



Naxos 6.220517
Hybrid-SACD

랑고르: 교향곡 12번, 13번, 14번
덴마크 국립 교향악단과 합창단 / 토마스 다우스고르

루에드 랑고르(1893-1952)는 20세기 초반 덴마크 음악계의 양광 테리블로 유명세를 떨쳤던 작곡가였다. 그는 자국 음악계에서 부당하게 과소평가 되어왔는데, 이 나라 음악계의 큰 기둥이었던 카를 닐센이 그의 작곡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작곡한 16편의 교향곡은 모두가 전통적인 교향곡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난 기형적인 스타일을 자랑하는데, 본 음반에 수록된 3편 역시도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조성체계에 기반을 둔 작품임에도 외형만큼은 대단히 자유분방하다. 특히 간결하고도 로맨틱한 정서가 충만한 13번, 합창이 첨부된 14번 교향곡이 주목할 만하다. Hybrid-SACD지만 가격은 일반 CD랑 동일합니다.



www.melody.su

MELODIY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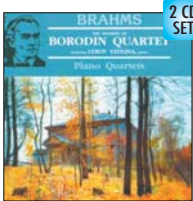
Borodin String Quartet



MEL CD 10 01077

Shostakovich: Complete String Quartets, Piano Quintet, 2 Pieces for String Octet
with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 프로코피예프 현악사중주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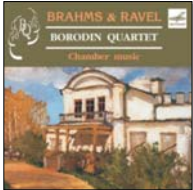
많은 애호가들이 열망해마지않던 2기 보로딘 사중주단의 쇼스타코비치 현악사중주 전집이 EMI, BMG를 거쳐서 본가 레이블인 멜로디야 자신들의 이름을 내걸고 다시금 등장하였습니다. 서방으로 망명한 두빈스키의 빈자리를 미하일 코렐만이 대신했던 보로딘 사중주단의 2기 멤버들이 완성한 이 전집은 그간 작곡가의 색채를 가장 충실히 드러낸 연주로 많은 쇼스타코비치 애호가들의 절찬을 받아왔던 검증된 명연입니다. 한동안 많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매장에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기에 이번 재출시가 더욱 반가울 것입니다.



MEL CD 10 01010

Brahms: Piano Quartets Nos.1-3
Member of Borodin Quartet (R. Dubinsky, D. Shbalin, V. Berlinsky), Lyubov Yedlina (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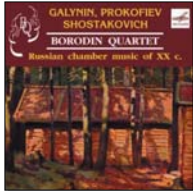
브람스의 피아노사중주 전곡을 수록하고 있는 이 음반은 보로딘 사중주단의 오리지널 멤버들과 야코프 플리에르의 제자이자 구소련 최고의 실내악 전문 피아니스트로 활약했던 류보프 예들리나(1기 보로딘 사중주단의 리더인 두빈스키의 부인이기도 하다)가 호흡을 맞추었던 소중한 기록이다. 두빈스키와 예들리나 부부가 망명하기 3년 전인 1972년에 완성된 녹음.



MEL CD 10 01040

Brahms: Clarinet Quintet & Ravel: Piano Trio
Borodin Quartet with Ivan Mozgovenko (cl), Lyubov Yedlina (pf)

브람스의 가장 인기 높은 실내악 작품의 하나인 클라리넷 오중주와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인상적으로 표출해낸 라벨의 실내악 걸작인 피아노트리오를 함께 담은 음반. 클라리넷 오중주는 그네신 음악원의 교수이자 구소련을 대표하는 클라리넷연주자였던 이반 모즈고벤코가 협연을 하였고, 라벨의 트리오에는 이 단체의 리더인 로스티슬라브 두빈스키와 첼로주자 발렌틴 베를린스키와 두빈스키의 부인인 류보프 예들리나가 호흡을 맞추었다. 1972년(라벨)과 1974년(브람스) 녹음.



MEL CD 10 00980

Prokofiev: String Quartet No.2, Shostakovich: Piano Trio No.2, Galynin: Piano Trio
Borodin Quartet, Lyubov Yedlina (pf)

2차 대전 기간은 프로코피예프의 창작력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다. 교향곡 5번, 오페라 '전쟁과 평화', 피아노소나타 8번등의 걸작이 쏟아져 나왔는데, 현악사중주 2번 역시 이 기간 동안 완성된 명작이다. 보로딘 사중주단은 이 작품에 깃든 러시아 민족적인 색채를 이상적으로 표현해내었다. 현악사중주들과 함께 쇼스타코비치를 대표하는 실내악 작품인 피아노트리오 2번과 이 작품의 영향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후배 작곡가 갈리닌의 피아노트리오가 함께 수록되었다.

[보로딘 현악사중주단의 구보들]	
MEL CD 10 00057	하이든: 십자가 위의 마지막 일곱 말씀
MEL CD 10 00218	드보르작: 피아노오중주 Op.81(with S 리히터) 현악삼중주
MEL CD 10 00942	보로딘: 현악사중주 1,2번
MEL CD 10 00954	드뷔시: 현악사중주, 라벨: 현악사중주
MEL CD 10 00958	쉬니트케: 현악사중주 1번, 세발린: 현악사중주 5, 9번 외
MEL CD 10 00979	바인베르그: 피아노오중주, 현악사중주 8번
MEL CD 10 00978	바버, 힌데미트, 쇤베르크: 현악사중주 2번

Evgeni Svetlanov Series



MEL CD 10 00180

림스키코르사코프: 세헤라자데, 사드코, 세르비아 주제의 환상곡, 무덤에서
에브게니 스베틀라노프 / USSR 국립교향악단

러시아의 대표적인 거장 스베틀라노프가 지휘하는 림스키코르사코프의 관현악걸작들. 아라비아의 이국적인 정취를 화려한 관현악법으로 그려내었던 작곡가의 대표작 세헤라자데 외에도 후일 동명오페라의 기초가 되었던 음악화(音樂畵) '사드코', 세르비아의 민족선율들을 자유롭게 엮은 환상곡, 러시아 오인조의 든든한 베틀이었던 출판자 벨라예프의 죽음을 추모하는 '무덤에서'가 수록되었다. 세헤라자데는 1969년 녹음, 나머지 작품들은 1965년의 녹음으로 스베틀라노프와 USSR 심포니의 파트너십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의 값진 기록이다.



MEL CD 10 00167

글린카: 애국의 노래, 기도, 우정의 추억, 서곡 G단조, 서곡 D장조
다르고미즈스키: 카자초크, 바바야가, 볼레로, 추콘 판타지
에브게니 스베틀라노프 / USSR 국립교향악단

19세기 전반기 러시아 민족주의 음악의 기초를 탄탄하게 닦았던 위대한 선각자 작곡가 두 사람의 작품을 함께 수록한 음반. 글린카가 청년기에 완성한 연주회용 서곡 두편과 함께 훔멜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야상곡을 관현악으로 편곡한 '우정의 추억', 독창과 합창이 수반된 칸타타 풍의 작품 '기도' 등이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이외의 이 작곡가의 또 다른 이면을 보여준다. 글린카보다 한 세대 이후의 작곡가인 다르고미즈스키의 작품들 역시 민족적인 정취가 가득 배어있는 작품들로, 러시아 설화에서 유래한 바바야가, 핀란드 민족 선율을 차용한 추콘 판타지, 스페인의 이국적인 정취를 느끼게 하는 볼레로 등의 개성적인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MEL CD 10 00170

칼리니코프: 교향곡 2번, 인터메초 1,2번, 현을 위한 세레나데, 님프
에브게니 스베틀라노프 / USSR 국립교향악단

바실리 칼리니코프(1866-1901)는 차이코프스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며 지휘자로서 모스크바 음악계에 처음 등장하였다. 작곡가로서도 교향곡 1번의 큰 성공 이후 러시아 음악의 새로운 희망으로 주목받았으나, 지병으로 3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본 음반에 수록된 교향곡 2번은 1번에서의 진한 민족적인 색채를 보다 세련되게 윤색시켜놓은 작품으로 작곡가 특유의 아름다운 선율미와 효과적인 관현악법이 빛을 발하는 숨겨진 걸작이다. 학창시절의 생기로움을 담은 관현악소품 '님프', 서정미가 돋보이는 세레나데, 매력적인 관현악소품들인 인터메초 두 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MEL CD 10 00169

칼리니코프: 관현악모음곡, 삼나무와 야자나무, 서곡 '발리나'
에브게니 스베틀라노프 / USSR 국립교향악단

35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한 비운의 작곡가 바실리 칼리니코프, 그가 보다 긴 생을 살았더라면, 러시아 관현악 레퍼토리는 한결 더 풍성해졌을 것이다. 그가 남긴 많지 않은 관현악 작품들은 이러한 안타까움이 절로 들만큼 충실하고 매혹적이다. 관현악모음곡은 동일 장르의 차이코프스키의 영향이 느껴지는 곡으로 발랄라이카나 돌라스와 같은 전통악기의 소리를 묘사한 독특한 관현악법이 인상적인 작품. '삼나무와 야자나무'는 작곡가를 대표하는 뛰어난 관현악 소품으로 작곡가 스스로도 자신의 최고작이라고 술회한 작품이다. 민족음악적인 특징이 농후한 연주회용 서곡 '발리나'가 음반의 대미를 장식한다.



MEL CD 10 01116

The Art of Elizaveta Gilels

라모: 탕부랭, 알베니스: 호타 아라곤네사, 노바첵: 무궁동, 디니쿠: 호라 스타카토, 텔레만, 르클레어, 이자이: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작품들, 비발디, 모차르트, 큐이: 바이올린소나타

엘리자베타 길렐스(vn), 레오니드 코간(vn), 에밀 길렐스 & 레브 엡스타인(pf)

엘리자베타 길렐스는 바로 피아니스트 에밀 길렐스의 여동생이자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레오니드 코간의 아내였다. 에밀보다 3년 뒤인 1919년 오데사에서 태어난 엘리자베타는 1933년 1회 소연방 콩쿠르에 참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1935년의 두 번째 대회에서는 2등상을 수상하였고, 이 대회를 통해 오이스트라호로부터 큰 찬사를 얻었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오빠와의 협연을 즐겼고, 코간과의 결혼 이후에는 남편과의 이중주가 레퍼토리의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본 음반에는 여러 인기 바이올린소품과 더불어, 남편과 호흡을 맞춘 텔레만, 르클레어, 이자이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작품들, 오빠의 반주와 함께한 비발디, 모차르트, 큐이의 바이올린소나타들이 함께 수록되었다.



MEL CD 10 01007

베토벤: 교향곡 4번,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 & 모차르트: 플루트협주곡 1번

에두아르드 세르바체프(II) / 키릴 콘드라신 / 모스크바 필하모닉

키릴 콘드라신/모스크바 필의 빈 고전 레퍼토리는 어색한 조합같지만, 연주결과만큼은 대단히 인상적이다. 1967년 녹음인 베토벤 교향곡 4번에서는 클라이머에 비견될 만한 팽팽한 긴장감과 목직한 박력, 목직한 스케일이 어우러진 뜨거운 열연. 콘드라신 휘하에서 모스크바 필의 수석 플루트주자였던 세르바체프가 독주를 맡은 모차르트의 플루트협주곡은 1964년의 기록으로 에스런 빅밴드 스타일로 연출해낸 등직한 연주가 작품에 대한 색다른 흥미를 안겨준다.



MEL CD 10 01155

Paul Kletzki in Moscow (1968 recor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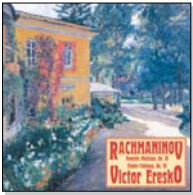
슈베르트: 미완성교향곡, 베버: 오베론 서곡, 브람스: 비극적 서곡

폴 클레츠키 / USSR 국립교향악단

최근 들어서 다시금 재평가 되고 있는 폴란드 출신의 명지휘자 폴 클레츠키(1900~73)가 모스크바에서 남겼던 진귀한 녹음이 CD로 발매되었다. 스위스로 망명한 이후 앙세르메의 뒤를 이어 스위스 로망드의 상임을 맡기도 했던 그는 특히 수차례의 소련방문을 통해서 이 나라의 청중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 소련 애호가들은 그를 제2의 푸르트벵글리로 추상했다고 한다. (1920년대 후반 청년 클레츠키를 발탁하여 베를린 필의 지휘를 수차례 맡겼던 장본인이 바로 푸르트벵글러였다.) 본 음반은 클레츠키가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방문했던 1968년의 콘서트를 수록한 것으로, 처절하기 이를 데 없는 비극적서곡과 거인의 보폭마냥 웅대한 스케일로 연출해낸 미완성 교향곡이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Victor Eresko plays Rachmaninov

피아니스트 빅토르 에레스코(1942년생)는 1963년 롱-티보 콩쿠르의 우승과 1966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의 입상을 통해 세계무대에 자신의 이름을 확고히 알렸다. 롱-티보 콩쿠르 당시 마케리트 롱 여사는 이 젊은 피아니스트를 두고 '나는 그에게서 새로운 라흐마니노프를 보았다'라는 극찬을 하기도 했었다. 두 번의 국제콩쿠르 석권 이후 전 유럽을 무대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스크리아빈, 라흐마니노프, 쇼스타코비치와 같은 러시아 레퍼토리의 해석에서 두각을 드러내었다. 에레스코는 1973년 라흐마니노프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작곡가의 피아노독주곡 전체를 완주했으며, 멜로디야를 통해 발매한 피아노협주곡 전집 역시도 좋은 평가를 얻었다. 1993년에는 러시아 명예 아티스트에 선정되었고, 1986년에는 아쉬케나지, S 리히터에 이어서 세 번째로 프랑스 정부에서 수여하는 예술문화 기사장을 받은 러시아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이 두 음반은 라흐마니노프 스페셜리스트로서의 이 피아니스트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MEL CD 10 01011

라흐마니노프: 악흥의 순간 Op.16, 회화적 연습곡 Op.39

빅토르 에레스코(pf)



MEL CD 10 01030

라흐마니노프: 24개의 전주곡 Op.3-2, Op.23, Op.32

빅토르 에레스코(pf)



www.kkv.no

KKV(Kirkelig Kulturverksted)



FXCD 314

올레 파우스: 거룩한 밤-스키페르 거리의 크리스마스

음유시인이 노래하는 크리스마스 노래들

노르웨이 최고의 트루바두르(음유시인) 가수 가운데 한 사람인 올레 파우스가 연주한 아주 독특한 크리스마스 앨범이다. 잘 알려진 명곡들도 아름답지만, 올레 파우스가 직접 쓴 노래들도 기막히게 감미롭다. 오르간 반주를 타고 흐르는 찬송가 같은 작품이 있는가 하면, 드럼세트, 트럼펫 혹은 하모니카 반주로 된 부드러운 노래들도 풍성하다. 그 부드러운 음악은 마치 록 뮤직같다. 그가 쓴 노래 중에는 '화창한 아침의 노래'가 특히 인상적이고, 크리스마스 명곡 '고요한 밤' 등이 아주 매력적으로 노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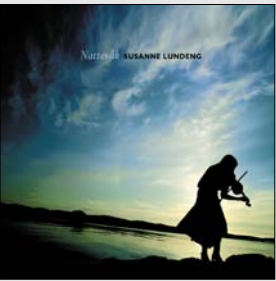


FXCD 313

크누 레이에르스루와 이베르 클레이베: 은총 은총

5만장 베스트셀러의 두 주인공

크누 레이에르스루와 이베르 클레이베 듀오의 새 앨범. 덴마크 오덴세 시에 있는 크누드 교회 프로덕션으로 1991년 '블루 코랄(Bla Koral)', 1996년 '히멜스키프(Himmelskip)'에 이어 그들의 세 번째 작이다. '블루 코랄'에서 교회 오르간과 블루스 기타의 조합이라는 혁신적인 듀오 연주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었는데, 이번 3집에서는 3차원 소리풍경에, 다이내믹 효과를 극대화한 황홀한 음악을 선사하고 있다. '가을이 오면'이란 곡을 시작으로 '은총 은총', '슬픔과 기쁨, 방랑하는 쌍둥이', '나의 피곤한 눈', '오 내 손을 잡아주오' 등 은총의 선율로 가득하다. 음향이 상당히 뛰어나 오덴세 교회 내부의 커다란 공간이 실감나게 느껴진다.



FXCD 310

수잔 룬덴(Susanne Lundeng): Natterdk(잠 못 이루는 밤)

국내 1만장 판매의 주인공 수잔 룬덴의 최신보
또 한번의 돌풍을 예고하다

북구 노르웨이 음악을 친숙한 멜로디로 들려주며 우리나라에서 폭발적인 인기몰이를 했던 바이올리니스트 수잔 룬덴이 내놓은 새 앨범. 룬덴은 어렸을 때부터 노르웨이의 옛 연주자들로부터 연주와 노르웨이 전통 음악

에 대해 많은 것을 터득했던 그녀가 2004년 앨범인 "Forunderlig Ferd"처럼 노르웨이 전통 민속 음악으로 꾸민 앨범이다. 역시 독특하게 서정적

인 멜로디가 인상적이다. 두 트랙의 음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음악을 룬덴이 직접 썼다. 그녀의 바이올린 외에 기타, 만돌린, 아코디언, 베이스, 드럼 등이 함께 연주해 아주 풍성한 음향효과를 만들고 있다.

신비스런 노르웨이의 바이올린 연주자로 그 유명한 베스트 넘버 '나는 당신의 소중한 사람(Jeg Ser Deg S te Lam; 야이 세르 다이 쇠트 램)'의 주인공인 수잔 룬덴이 내놓은 오랜 만의 신보다. 아홉 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연주했고, 노르웨이의 옛 연주자들로부터 연주전통과 노르웨이 민속음악에 관한 많은

정보를 입수했던 그녀의 앨범은 언제나 특별한 수밖에 없다. 이번 음반도 노르웨이 전통 민속 음악을 반이다. 그녀 특유의 매력적인 선율이 많은데, 타이틀곡인 '잠 못 이루는 밤' 외에 '백일몽 같은 왈츠', '욕망', '남자들을 위한 춤', '출구' 등 아름다운 음악들이 주옥같은 시편처럼 담겼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로망스 3집 ‘프로이까’



AMC2-074

꿰어질 듯 꿰어질 듯 예상을 뛰어 넘는 길고 긴 고음,
러시아 음악 매니아의 우상 알라 소렌코바의 <볼가강> 드디어 공개!!

그녀의 애절한 고음이 언제 멈추는지 확인하라. - 이 한장의 명반 저자. 안동립 교수 -

노래하는 대지 러시아, 그 영혼의 시와 노래

지난 1993년,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 러시아 사회를 취재한 서방 언론의 한 기자는 다음과 같은 글을 쓴바 있다. “러시아인들은 러시아어를 숭배하고 장려하며, 모국어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어는 그 음률이 매력적이고, 문법은 복잡하며, 어휘가 풍부하기 때문에 얼렁뚱땅 배우기엔 큰 고역이지만 착실히 배워두면 큰 자산이 된다. 많은 러시아인들은 초등학교 때 배운 시를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암송할 수 있다. 전통 문학 작품들은 신성화되다시피 한다. 심지어 가장 아둔한 정치인들도 놀랄 만치 우아한 언어로 자기 의견을 표현한다. 또 신문들은 섬세한 산문체 문장들로 가득 차 있다. 음악회는 음악을 이해하고 철저히 향유할 줄 아는 청중들로 매워진다. 훌륭한 복장의 청중들은 음악회에 참석함으로써, 사회주의에 빼앗겼던 기쁨을 어느 정도 되찾은 것처럼 보인다. 이때만큼은 그들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마음껏 웃는데, 러시아에선 보기 드문 광경이다. 좋아하는 음악가가 등장하면 갈채를 아끼지 않고 장미나 카네이션 꽃다발을

무대에 던지기도 한다. 사실 러시아인들은 ‘브라보!’ 소리를 천박하지 않게 외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민들 중 하나다.” 막심 고리키는 “러시아인은 워낙 비참하게 살아 슬픔 정도는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러시아의 전 역사는 엄청난 시련으로 점철되어 왔고 경제 성장 속도에서 중국을 앞서는 호황을 맞고 있다는 지금도 예외는 아니다. 신흥 경제 붐은 대체로 모스크바에 한정된 이야기이고 모스크바에서조차 그 혜택은 잘 사는 일부 소수만이 누린다. 대다수 국민은 하루 벌여 하루 먹고 사는 극빈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며 ‘언젠가는 생활이 나아질 날이 오겠지’ 하는 헛된 기대를 걸며 살고 있다. 그러나 많은 러시아인들은 소비에트 체제의 붕괴 이후 경제가 피폐하고 앞날에 대한 희망이 꺾였을지는 몰라도 러시아의 ‘영혼’은 건재하다고 주장한다. 그 ‘영혼’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푸슈킨, 레르몬토프, 제르작빈, 블록, 예세닌, 파스테르나크와 같은 시인들과 그 시를 노래하는 민속악기 발랄라이카, 그리고 민요가 아닐까. 영혼이 기쁘면 기쁘대로, 영혼이 쓸쓸하면 쓸쓸한대로 인간들은 노래를 불러왔다. 가진 자는 축복을 위해, 가난



한 자는 슬픔을 떨기 위해, 힘든 자는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 그렇게 민중의 삶과 함께 해온 것이 민요이다. 그래서 러시아 민요의 소재는 진정 다양하다. 피곤한 일상의 노동에 지친 심신에 힘을 주기 위한 노래(Dubinushka)가 있고, 젊은 연인들의 애절한 연가(Katiucha)가 있다. 역사상 찬연한 빛을 발하는 대사건을 서사풍으로 읊기도 하고(Styenka Razin, Utyos) 장려한 대자연의 장관을 노래하기도 하며(A Birch Tree in the Field), 시집가기 전의 처녀와 노모가 나누는 다감한 대화가 그대로 노래가 되기도 한다.(Red Sarafan) 그런가 하면 시의 아름다움을 맛 볼 수 있는 가사와 음악의 선율이 그 위에 덧붙여 지고 또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영혼이 함께 어우러진 러시아 로망스가 주는 매혹은 러시아인들의 자부심을 활짝 피어나게 만든다. 민속악기 발랄라이카의 반주에 실린 러시아 민중들의 노랫가락은 어떤 의미에선 ‘듣는 역사’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발랄라이카(Balalaika)만큼 러시아를 느끼게 하는 악기가 또 있을까? 3각형의 울림통에 3개의 현을 가진 이 소박한 류트 기타계의 탄주악기는 예부터 러시아 농민들에게 사랑을 받아, 들이나 숲 속에서 노래와 함께 연주되어 왔다. 울림통의 크기(음역)에 따라 제일 작은 프리마(주로 독주에 쓰이고 조현은 E-E-A)에서 세쿤다, 알토, 바스, 콘트라바스의 5종으로 이루어지며, 그 소리는 마치 인간의 수다를 닮은 듯 밝고 투명해서 골짜기를 사이에 둔 건너 편 산에서도 잘 들릴 정도다. 구슬프게 멜로디를 노래하는가하면 복잡하고 활발한 리듬까지 놀라울 정도로 또렷하게 표현해 낸다. 보기에는 단순한 악기 같지만 애수와 걱정에서 슬픔과 기쁨을 그 음색의 다양함으로 노래하는, 너무나 풍부하고 독특한 표현력은 러시아인들의 일상 언어의 일부분이 되어 러시아인 로망스와 함께 그들의 정신사에 엄청난 풍요로움을 더하고 있다. 러시아의 시인 네크라소프가 “풍요한 러시아여, 그리고 가난한 러시아여”하며 노래했듯이 러시아 민중의 삶은 언제나 가난의 역사였으나 시와 음악은 실로 풍요로웠다고 할 수 있으리라. 이렇듯 흔들림 없는 러시아인의 정신구조를 러시아의 사상가인 니콜라이 베르자예프는 “러시아의 혼에는 러시아의 국토가 광대하고 망망하고 무한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즉 러시아인의 정신지리는 자연지리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끝없이 막막한 대평원으로 이어지는 대지. 그 표면에는 뚜렷한 윤곽도, 한계도 없다. 산이나 계곡의 복잡함도 없고 각 지역의 특수한 형태를 규정할 만한 것이 없이 오로지 무한으로 흘러 이어지고 러시아의 강도 언제나 평원을 따라

무한으로 흘러간다. 이러한 자연지리와 소용돌이 치은 역사가 러시아 정신의 평탄함과 애수를 낳은 것이다. 그렇지만 러시아의 음악속에 깃들어 있는 독특한 애수감에서 결코 절망감은 느낄 수 없다. 마치 발바닥으로 얼어붙은 땅을 굳건히 딛고 서 있는 힘 같은 것이 있다. 역사에 대한 중국적인 승리와 내일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그 힘은 어쩌면 하나님의 참된 목소리가 아닐까. 러시아의 속담에 ‘민중의 목소리는 곧 신의 소리’라는 말이 있기도 하다.

서남준(음악평론가)

[앨범수록곡]

- 가을의 노래 (Осенняя песня : 오셴나 페스나)
안나 게르만 (Анна Герман)
- 짙은 자줏빛 숲 (Темно-вишневая шаль : 쉰노 비쉬노바야 샬)
안나 리트비넨코 (Анна Литвиненко)
- 이별의 왈츠 (Прощальный вальс : 쉰라샬노의 발스)
류드밀라 센치나 (Людмила Сенчина)
- 유년의 도시 (Город детства : 코로드 제스트바)
에지따 뵤예하 & 앙상블 <두르쭌바> (Эпыха & ансамбль <Дружба>)
- 사랑론 (Калитка : 깔리뜨카)
니콜라이 에르젠코 (Николай Эрденко)
- 프로이까 (Вотмчитсятройка почтовая : 붓 믈치뜨 프로이까 뽏츠터바야)
이반 페트로프 (Иван Петров)
- 오! 아름다운 나의 정원 (Ужты, сад : 우쉬 트이 싸드)
발랄라이카 (Балалайка)- 로즈코프 (М. Рожков) / 기타 (Гитара)- 미냐예프 (Г. Миняев)
- 볼가 강 (Волга-реченька : 볼가 레첸까)
알라 소렌코바 (Алла Соренкова)
- 바다 위를 (Как по морю : 까끄 빠 모류)
발렌티나 톨쿠노바 (Валентина Толкунова)
- 속요 (Частушки : 치스투쉬끼)
잔나 비첵스카야 (Жанна Бичевская)
-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Я вас любил : 야 바스 류빌)
블라디미르 디바토프 (Владимир Девятлов)
- 우리는 뱃놀이를 했대네 (Мы на лодочке катались : 므이 나 로더치케 까달리시)
발렌티나 톨쿠노바 (Валентина Толкунова)
- 나는 모스크바 거리를 걷고 있네 (Я шагаю по Москве : 야 샤가유 빠 막스끄베)
미할코프 (Н. Михалков)
- 노보라시끄의 저녁 (Новороссийские вечера : 노보라시스끼에 베체라)
앙상블 <도브로이 말라제쯔> (Ансамбль <Добры молодцы>)
- 밤이 밝구나 (Ночь светла : 노취 스베틀라)
엘미라 젤레바 (Эльмира Жерздева)
- 스젠까 라진 (Из-за острова на стрежень : 이자 오스트로바 나 스테레젠)
안나 게르만 (Анна Герман)

노르웨이 류트, 기타, 테오르보 연주자

로프 리슬레반 Rolf Lislevand



ROLF LISLEVAND:
FUL I GAMMEL TID
(로프 리슬레반: 옛날의 크리스마스)

FXCD 301

노르웨이 태생의 류트 연주자이며 기타리스트인 로프 리슬레반은 KKV레이블에 이름을 실고 있지만 사실은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에게 더 친숙한 이름이다. 조르디 사발이 만들어 가는 알리아 보스(Alia Vox) 음반 가운데, 너무도 유명한 '라 폴리아'에서 사발의 비올과 함께 연주했던 인물이 바로 그였고, 그 외 호세 마린의 '인간의 선율', 나이트 레이블의 '알파 베토', 오르티스의 비올 음악집 등 유명한 고음악 레퍼토리에서 바로크 기타나 비후엘라를 연주하던 사람이 바로 리슬레반이었다. 로프 리슬레반은 1961년 오슬로에서 태어났다. 1980년부터 1984년까지 노르웨이 국립 음악원에서 클래식 기타를 배웠다. 1984년에는 당시 유럽에서 초기 음악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스위스의 스콜라 칸토룸 바실리엔시스에 들어가 공부했다. 1987년까지 거기서 공부했는데, 홉킨슨 스미스(Hopkinson Smit) 같은 선생이 그를 지도했다. 이후 조르디 사발의 요청을 받아들여 에스페리옹 20, 라 샤넬 루아얄 데 카탈루냐, 콩세르 데 나시옹 악단의 멤버로 활동했다. 사

발의 악단과 활동하면서 그는 17세기 프랑스 비올라 다 감바 음악에 대해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고, 그의 부인 피구에라스로부터는 16세기, 17세기 스페인 성악 예술을 공부해서 매우 친숙한 레퍼토리로 만들었다. 1987년 이래, 그는 이탈리아의 베로나에서 살면서 17세기 초반의 이탈리아 음악의 연주법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했다. 리슬레반의 음반들은 예전에 주로 프랑스 오비디스/아스트레 레이블을 통해 발매되었다. 이탈리아 태생의 카프스베르거의 류트 음악으로 폭발적인 찬사를 받으면서 화려하게 음반계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한 그는 류트를 연주하든, 바로크 기타를 연주하든 테오르보를 연주하든 리슬레반은 자신의 악기가 작품에서 완전 연소하도록 만든다. 기본적으로 1600년대 바로크 시대 음악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바로크뿐만 아니라 현대의 즉흥적인 정신과도 잘 융화되어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다. 1993년 이래 리슬레반은 독일 트로싱엔 음악원의 교수로 재직해왔다.

TDK
mediactive
www.tdk-music.com

TDK DVD



TDK DVWW-OPBEST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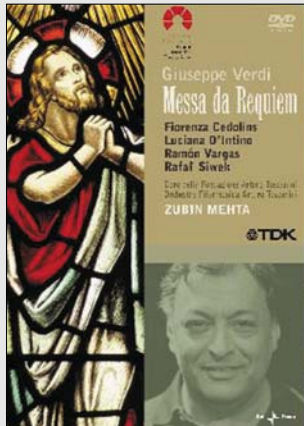
TDK 클래식 베스트 장면 오페라 & 콘서트 & 발레 07

영상 컴필레이션의 획기적인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TDK의 하이라이트 장면 모음 제 7편. 워낙 뛰어난 화질과 음향을 담은 고품질의 DVD인데다 현역 최고 음악가들의 생생한 모습을 담고 있으며, 또 특별히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 시리즈는 1편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왔다. 이번 아이템도 카운터테너 브라이언 아사와, 지휘자 세미 온 비쉬코프, 쿠르트 마주어 등 현재 활동 중인 최고의 음악가들을 만나볼 수 있다. 베르디 <라 트리아비아>의 '축배의 노래'를 시작으로 모차르트 <코지 판 투테> 중에서 '바람아 잠잠해져라', 슈베르트 미완성 교향곡 등 1시간 30분 동안 폭 빠져서 보게 만든다.

지난 시즌 발매 분 감동의 장면 엄선!
2007년 TDK 카탈로그가 함께 들어있다

수록곡

01. Verdi : La Traviata "Libiamo ne' lieti calici"
02. Handel : Giulio Cesare "Non disperar, chi sa?"
03. Giordano : Andrea Chenier "Un di all'azzurro spazio" (excerpt)
04. Mozart : Così fan tutte "Soave sia il vento"
05. Mozart : Requiem Dies irae
06. Rossini : Il barbiere di Siviglia "Dunque io son...tu non m'inganni?"
07. Giordano : Fedora "A mia madre penso" (excerpt)
08. Adam : Giselle Act II - Grand Pas de deux (excerpt)
09. Ponchielli : La Gioconda "E un anatema!"... "L'amo come il fulgor del creato!"
10. Mussorgsky : Boris Godunov "Zvon! Pogrebalny zvon!"
11. Mozart : La finta giardiniera "Geme la tortorella"
12. Debussy : Pelléas et Mélisande "Je ne pourrai plus sortir de cette forêt!"
13. Verdi : Aida "Gloria all'egitto"
14. Schubert : Symphony No.8 in B minor "Unfinished"
15. Verdi : Rigoletto "Della mia bella incognita borghese" "Questa o quella per me pari sono"
16. R. Strauss : Der Rosenkavalier "Über kurz, oder lang?" "Die Zeit, die ist ein sonderbar Ding"
17. R. Strauss : Elektra "Was bluten mub?"
18. Petit : Notre-Dame de Paris The tavern : Pas de trois - Frolo stabs Phoebus
19. Mozart : La clemenza di Tito "Quello di Tito e il volto!"
20. Petit : Le jeune homme et la mort Entrance of the young girl
21. Verdi : Nabucco "Deh, perdona ad un padre"
22. Puccini : Madama Butterfly "Vogliatemi bene"



TDK DVWW-COVREQ

베르디: 레퀴엠

연주: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재단 합창단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압도적인 노거장의 지휘, 그리고 선행까지

2005년 1월 30일에 로마에서 주빈 메타가 쓰나미가 일어난 지 약 한 달 만에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악단과 함께 했던 기념비적인 실황연주 자료다. 역시 이 시대 최고의 거장 메타의 70을 앞둔, 노인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특별하다. 베르디 레퀴엠이라면 일가견이 있고 좋은 녹음까지 가지고 있는 주빈 메타의 달관한 듯 유창하게 흐르는 선율, 그리고 극도로 예리한 해석을 만끽할 수 있다. 빼어난 독창자들은 그의 지휘봉에 완벽하게 반응하여 드라마틱하고 압도적인 죽음의 노래를 선사한다.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재단의 판매 수익금이 쓰나미 희생자들을 돕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Giuseppe Verdi *Messa da Requiem*



TDK DVWW-BLLBSC

밍쿠스: 라 바야데르

꿈결처럼 아름다운 비장미로 가득한 자하로바의 '망령의 왕국'

'망령의 왕국'은 마리우스 프티파의 고전 발레 <라 바야데르>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하는 부분으로 <백조의 호수>나 <지젤>에 견줄만한 명장면이다. 히말라야 산정에서 꽃잎처럼 내려오는 수많은 여인의 영혼! 이곳은 사랑을 잃고 힘없이 죽어간 원혼들이 머무는 곳이다. <라 바야데르>는 워낙 '망령의 왕국'이 유명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막을 내리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망명한 위대한 발레리나이자 안무가 나탈리아 마카로바는 프티파의 1877년 오리지널 안무에 주목하여 오랫동안 생각되었던 사원의 붕괴 장면을 재현하였다. 마카로바 프로덕션은 1980년 아메리칸 발레 씨어터를 시작으로 로열 발레, 함부르크 발레, 라 스칼라 발레에 채택되었으며 본 영상물은 2006년 5월 라 스칼라 실황이다.

<라 바야데르>는 '인도의 무희'란 뜻이며 주인공 니키야 역을 우크라이나 출신의 스베틀라나 자하로바가 춤춘다. 자하로바는 긴 팔과 긴 다리의 완벽한 체형과 놀라운 테크닉을 겸비한 발레리나이며 현재 세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슈퍼스타이다. 이 공연에서도 환상적인 자태와 절정의

가량으로 결코 잊을 수 없을만한 니키야를 창조하고 있다.



TDK DVWW-OPTANC

로시니: 탄크레디

피에르 루이지 피치의 연출로 되살아난 로시니 오페라 세리아의 걸작

"로시니를 희극극 전문으로 착각하지 말라!" 2006년 11월 한국을 방문한 이탈리아의 대표적 오페라 연출가 피에르 루이지 피치가 한국의 오페라 팬에게 던진 말이다. 그렇다. 로시니는 <세비야의 이발사>, <라 체네렌톨라>,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의 3대 오페라 부파 외에 수많은 오페라 세리아를 남겼으며 최근 유럽에서는 그의 오페라 세리아도 벨리니나 도니체티 못지않게 공연되고 있다. 그 선두권에 있는 작품이 <탄크레디>이다.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곡으로 널리 알려진 '설레임'이란 노래가 원래 이 오페라에 나온다. 로시니가 불과 21세에 작곡한 <탄크레디>는 11세기 시칠리아 섬을 배경으로 추방당한 기사 탄크레디와 그의 연인인 시라쿠사 공주 아메나이드의 고단한 사랑을 다룬다. 카스트라토 황혼기의 오페라여서 타이틀 롤은 원래 카스트라토에게 주어졌다. 물론 20세기에 이 오페라가 리바이벌된 이후에는 메조소프라노가 탄크레디를 부른 경우가 많다. 1999년 페사로 페스티벌을 위한 피에르 루이지 피치의 프로덕션을 2005년 피렌체의 마지오 무지칼레에서 리바이벌한 본 공연에서는 현재 로시니 오페라 최고의 히로인인 대형 메조소프라노 다니엘라 바르셀로나가 타이틀 롤을, 불가리아의 리릭 소프라노 다리나 타코바가 아메나이드를 맡았다.



TDK DVWW-OPFALF

베르디: 팔스타프

이 시대를 대표하는 베이스바리톤 루제로 라이몬디의 팔스타프

볼로냐 태생의 루제로 라이몬디(1941~)는 20세기 후반의 이탈리아 베이스를 상징하는 대가수이다. 특히 베이스 가수로 훈련받았지만 베이스의 대표적인 제역을 마스터한 후에는 바리톤 역까지 섭렵하여 에스카미요(카르멘), 스카르 피아(토스카)에서도 당대 최고의 가수가 되었다. 이런 위대한 베이스바리톤이 베르디 최후의 오페라이자 풍자적 희극인 <팔스타프>도 노래한다는 것은 지극히 예측가능한 일이다. 인생에 있어서도 달관의 경지에 오른 라이몬디는 팔스타프의 주책 많은 캐릭터를 위락쾌락 맘껏 펼쳐 보인다. 본 공연은 2006년 피렌체의 마지오 무지칼레 실황으로 지휘자 주빈 메타의 70회 생일, 그리고 동 극장과 연을 맺은 지 30년째 되는 명연출가 루카 론코니를 축하하여 무대에 올린 것이다. 주빈 메타가 최상의 실력을 발휘하는 곳이 피렌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무대 분할에 능한 론코니의 새 연출은 이번에도 역시 빛을 발한다. 실력에 비해 그 모습을 볼 기회가 적었던 이탈리아의 대표적 소프라노 바르바라 프리톨리가 알리체 포드를 부르고, 러시아의 젊은 리릭 테너 다닐 쉬토다가 펜톤 역으로 그 실력을 뽐낸다.



TDK DVWW-OPTUR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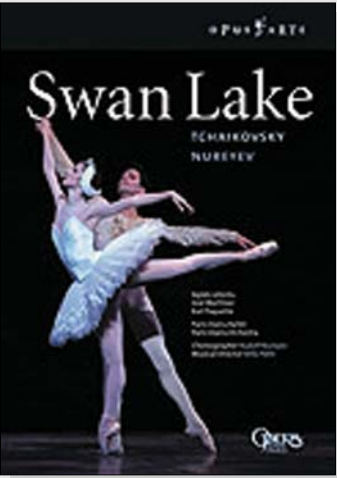
푸치니: 투란도트

새로운 연출로 해석한 충격적 결말 - 투란도트, 죽음을 선택하다

아름다운 고대 중국의 공주가 자신에게 구혼하려 온 왕자들마다 세 개의 수수끼끼를 내어 풀지 못하면 목을 베어버린다는 <투란도트>는 푸치니가 미완성으로 남긴채 세상을 떠난 마지막 오페라이며 모든 드라마틱 소프라노가 도전하고 싶은 에베레스트 정상과 같은 드넓은 봉우리이다. 특히 모든 남자를 홀리게 할만한 투란도트의 아름다움, 그와 전혀 대조적인 차갑고 잔인한 이미지, 그러면서도 극의 마지막에 사랑을 깨닫는 여인으로 거듭 태어나는 캐릭터를 모두 완벽하게 표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화제로 소실되었다가 1999년 재개관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오페라 극장으로 탄생한 바르셀로나의 리세우 극장은 그 기념으로 <투란도트>를 무대에 올렸고 5년만인 2004년 리바이벌했다. 또한 호평 받았던 여류연출가 누리아 에스페르트의 프로덕션을 다시 사용한 것도 너무나 당연했다. 에스페르트는 무용가 루돌프 누레예프도 선호했던 이탈리아의 에치오 프리제리외와 프랑카 스카르치아피노에게 무대와 의상을 맡겨 가장 아름다운 무대를 꾸민 동시에 결말에 있어서는 갈라프의 이름을 알아낸 투란도트가 왕자의 목숨 대신 자신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충격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다.

Opus ARTE
www.opusarte.com

Opus Arte DVD



Opus Arte OA 0966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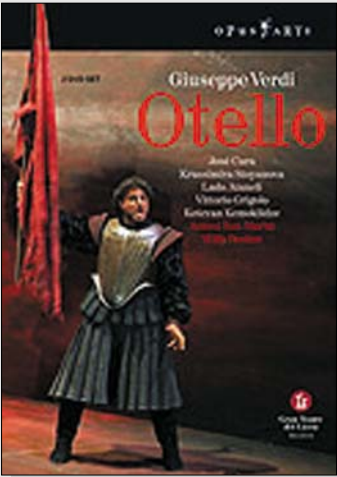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누레예프의 섬세한 터치로 새로운 감각을 획득한 발레의 진정한 고전 <백조의 호수>는 누구나 인정하는 고전 발레 최고의 걸작이다. 차이코프스키의 아름답고 리드미컬한 음악, 마리우스 프티파와 레프 이바노프가 꾸며 놓은 고풍적 안무, 그리고 독일 전설에서 취재한몽상적 사랑에 대한 향수까지! 러시아에서 서구에 망명한 20세기 최고의 남성 무용수 루돌프 누레예프는 안무가로도 탁월했으며 특히 러시아 고전발레를 세련된 무대로 재창조하는 작업에 뛰어났다. <백조의 호수>는 1964년 빈 국립 발레단과 처음 작업한 이래, 예술감독을 맡았던 파리 오페라 발레를 위해서는 1984년에 새로운 프로덕션을 만들었다. 이 프로덕션은 누레예프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꾸준히 공연되고 있으며 본 영상물은 2005년 파리 바스티유 극장 실황이다. <백조의 호수>를 지크프리트 왕자의 의식 속에서 전개되는 현실과 비현실의 갈등으로 그려냈으며 비극적 장중함이 공연 전반을 지배한다. 파리 오페라 발레 최고의 스타 커플이자 실제로도 부부 사이인 아네스 레테스튀, 호세 마르티네즈가 주역을 맡았으며 누레예프의 오랜 조력자였던 이탈리아의 에치오 프리제리오와 프랑카 스콰르치아피노가 무대와 의상을 맡았다.

[보충 자료]

- 누레예프는 1983년부터 파리 오페라 발레의 예술감독을 맡았으며 그 기간 중 <돈키호테>, <라이몬다>, <백조의 호수>, <로미오와 줄리엣>, <신데렐라>, <호두까기 인형>, <잠자는 미녀>, <라 바야데르>등을 만들었다. 엄청난 제작비를 쏟아 부었다는 점, 그리고 무대와 의상 담당자를 이탈리아에서 불러와 파리 사람들의 문화적 자부심을 손상시켰다는 등의 비난도 받았지만 결국 이 덕분에 파리 오페라 발레는 세계 최고수준의 발레단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며 아직도 누레예프 시절에 제작된 프로덕션으로 흥행을 보장받고 있다.
- 누레예프는 빈 국립 발레를 위한 재안무에서도 그랬듯이 파리 오페라 발레를 위한 <백조의 호수> 역시 지크프리트 왕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의 의식 속에서 벌어지는 꿈과 현실의 불일치를 그려낸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프로이드적인 해석이 가미되었으며 고통스런 결과를 감내해야 하는 전개를 펼치고 있다.
- 아네스 레테스튀는 파리 오페라 발레가 자랑하는 발레리나로서 절세의 미인인 동시에 고고한 기품으로 사랑받고 있다. 스페인 출신의 호세 마르티네즈는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발레리나와의 파트너십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무대 밖에서도 레테스튀와 함께 하는 사이이다. 현재 30대 중반의 나이인 두 사람은 파리 오페라 발레의 에투알(주역무용수) 중에서도 간판급으로 인정받는 존재다.

Tchaikovsky *Swan Lake*



Opus Arte OA 0963D

베르디: 오텔로

델 모나코와 도밍고를 잇는 최고의 오텔로 호세 쿠라의 놀라운 열연 베르디 만년의 걸작 <오텔로>는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오페라화한 것으로 목격한 남성 오페라의 걸작이다. 특히 그 타이틀 롤은 음악적으로는 물론 극적으로도 대단한 난역이기 때문에 '한시대마다 단 한명의 오텔로만이 존재한다.'는 말이 생길 정도이다. 그리하여 20세기 오텔로의 계보는 조반니 마르티넬리, 마리오 델 모나코, 그리고 1970년대 중반이후의 플라시도 도밍고로 대표되어왔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오텔로는?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아르헨티나의 드라마틱 테너 호세 쿠라를 첫 손에 꼽는다. 드디어 그의 첫 <오텔로> 영상물인 2006년 2월의 바르셀로나 리세우 대극장 실황이 여기 소개된다. 과연 호세 쿠라는 특유의 숙련된 음성과 뛰어난 연기력으로 오텔로의 내면적인 고통을 드러내 보인다. 최근 일련의 놀라운 영상물들로 우리를 놀라게 한 빌리 데키의 연출도 훌륭하다. 주역 세 사람에게 더욱 초점을 맞춘 가운데 무대장치와 술수와 질투에 말려드는 인간의 좁은 내면과 원색적 감정을 잘 들어냈다. 영상으로는 처음 소개되는 불가리아 소프라노 크라시미라 스토야노바(데스테모나)와 그루지아 바리톤 라도 아타넬리(이아고)도 대단히 뛰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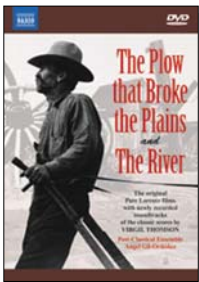
[보충 자료]

- <오텔로>는 1887년 베르디가 74세가 된 해에 초연되었다. 작곡에 무려 6년의 시간이 소요된 노작이었다. 대본은 이탈리아의 바그네리안이었던 아리고 보이토가 맡았으나 베르디가 일일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셰익스피어 원작의 1막은 잘라버리고 대사의 대대적인 압축이 불가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작의 깊이를 유지한 것은 극적인 긴박감은 셰익스피어 이상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의 걸작이다. 베르디의 예술관이 어디까지 깊어질 수 있었는가를 보여준 최고의 사례다.
- 호세 쿠라는 1962년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활동하는 최고의 드라마틱 테너이다.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력은 물론 지휘자로도 활약할 정도로 음악성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마리오 델 모나코와 존 비커스, 플라시도 도밍고를 이을만한 유일한 오텔로인 것이다.
- 크라시미라 스토야노바(데스테모나)는 불가리아 출신이며 1995년 소피아에서 데뷔하여 한창 국제적 성가를 높여나가는 중이다. 특히 2007년 상반기 일정을 보면 바르셀로나와 동경에서 데스테모나를 부르는 일정이 잡혀있다.
- 라도 아타넬리(이아고)는 그루지아 출신이며 베르디와 푸치니, 베르즈모 오페라 등 이탈리아 레퍼토리에 두루 능한 바리톤이다. 강건한 음색에서 뿜어져 나오는 뛰어난 성격 연기가 일품이다.

Verdi *Otello*



Naxos DV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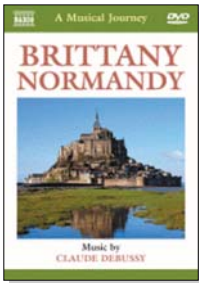


Naxos 2.110521

페어 로렌츠: 평원을 일구는 쟁기 & 강

페어 로렌츠의 고전적 다큐멘터리에 사용된 버질 톰슨의 음악
페어 로렌츠(1905~1992)는 미국 기록영화의 거장이며 특히 뉴딜 정책을 홍보하는 다큐멘터리로 유명하다. 그 대표작이 1936년의 <평원을 일구는 쟁기>, 1937년의 <강>이다. 전자는 미국 대평원 지대를 황폐화시킨 농업적 오용실태를 고발한 작품이며 후자는 미시시피강과 그 유역의 역사, 그리고 테네시 강 개발이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는데, 당대는 물론 후대까지 그 내용의 공과와 다큐멘터리 영화의 작법에 대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지금은 미국 국립기록보관소에 소장된 고전적 필름으로 평가된다. 로렌츠는 다큐멘터리에 높은 수준의 클래식 음악을 사용했다는 점에서도 혁신적이었다. 20세기 미국 작곡계의 거장이자 비평가로도 유명한 버질 톰슨(1896~1989)을 끌어들인 것이다. 하버드 대학 출신이며 프랑스의 나디아 불랑제를 사사한 톰슨은 프랑스 6인조와 에릭 사티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으며 명료한 표현력과 유머를 특징으로 한다. 톰슨과 페어 로렌츠는 미국 민요를 중요하게 사용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단순 소박한 스타일의 음악을 이용하여 자칫 지루하게 흘러갈 수 있는 다큐멘터리에 강한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결과적으로 이 두 필름은 이례적으로 흥행에서도 성공한 다큐멘터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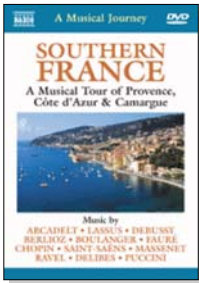
나소스 음악 여행 시리즈



Naxos 2.110514

나소스 음악 여행 시리즈 – 브르타뉴와 노르망디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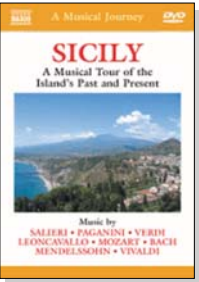
프랑스 북부의 켈틱 분위기
프랑스 북부 브르타뉴와 노르망디를 스케치한 영상물. 브르타뉴는 프랑스 북서부의 일레빌렌, 모르비앙, 코트뒤, 노르, 피니스테르 주들을 포함하는 지구를 말하며 기록에 남아 있는 최초의 브르타뉴 주민은 켈트계 부족이었다. 독특한 해양성 기후, 북쪽의 날카로운 협곡들, 깊이 만입되어 있는 해안선 등 브르타뉴의 이색 풍경은 시각적으로 압도한다. 노르망디 역시 원류는 켈트 족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재는 프랑스 북부의 망슈, 칼바도스, 오르, 외르, 센마리팀 주들을 포함하는 유서 깊고 문화적 수준이 높은 프랑스령이다. 역시 역사의 마술에 걸린 듯한 고대 건축물과 오묘한 자연이 압권인데, 드뷔시의 주옥같은 음악들이 더욱더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만들어준다.



Naxos 2.110516

나소스 음악 여행 시리즈 – 남부 프랑스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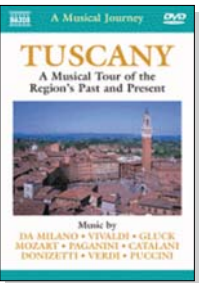
프로방스, 코트 다쥐르 그리고 카마르그를 여행하다
프랑스 남부의 놀라운 자연풍광
프랑스 남부의 세 지역을 집중 조명한 영상물. 프랑스 남동부에 있는 부슈뒤론, 보클뤼즈, 알프드오트프로방스, 바르 주들을 포함한 프로방스(Provence)를 여행하고, 칸느-니스-모나코로 이어지는 해안선을 일컫는 코트 다쥐르(Cote d'Azur)에서는 세계적인 휴양도시로서의 면모를 장엄한 스케일로 보여준다. 카마르그(Camargue)는 원래 프로방스의 투우 시합을 위해 사육하던 황소 떼들과 야생마들이 돌아다니던 황야였었는데, 지금까지도 잘 보존된 그곳 거대한 자연풍광이 생생하게 스케치된다. 영상의 분위기 및 환상을 진하게 하는 데는 쇼팽과 푸치니의 음악이 집중 사용되었고, 베를리오즈와 라벨의 명곡들도 등장한다.



Naxos 2.110518

나소스 음악 여행 시리즈 – 시칠리아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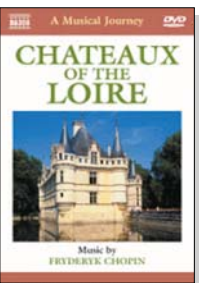
시칠리아 섬의 과거와 현재를 여행하다
이탈리아의 천혜의 섬
이탈리아의 거대한 섬 시칠리아를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여행할 수 있는 영상물이다. 시칠리아는 다양한 역사를 가진 섬이다. BC 8세기 페니키아인과 그리스인의 지배를 받은 이래 많은 민족이 점령했고, 19세기에 들어와서 부르봉 왕가에서 해방, 통일된 이탈리아 왕국과 합병하였고, 1947년 지방자치권을 얻었던 곳이다. 지중해의 그 아름다운 풍경이라면 어울리지 않을 음악이 어디 있겠는가! 빈의 궁정 음악가 살리에리의 음악이 너무도 아름답게 어우러지고 모차르트의 명곡들, 베르디, 레온카발로, 멘델스존, 파가니니 음악까지 감동적으로 흐른다. 특히 그 음악의 발원지라는 의미를 새기며 바흐의 시칠리아 무곡을 듣는 맛도 각별하다.



Naxos 2.110520

나소스 음악 여행 시리즈 – 토스카나 편

그 지방의 과거와 현재를 여행하다
르네상스 문화의 중심지
이탈리아에서 가장 발전한 농업지역 가운데 하나로, 밀을 비롯한 곡물, 올리브와 올리브유, 포도주 생산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탈리아 중부의 토스카나 지방을 세밀하게 스케치한 영상물이다. 토스카나란 이름은 BC 1000년경 이 지역에 정착했던 에트루리아 왕국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그 이름은 르네상스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 아름다운 이탈리아 문화의 여러 단면을 보여주면서 선택한 음악들도 주로 이탈리아 음악이다. 17세기 밀라노의 류트 연주자 프란체스코 카노바 다 밀라노의 음악도 아주 잘 어울리고, 베네치아의 비발디 음악은 물론 19세기의 파가니니, 도니제티, 베르디, 푸치니의 음악들도 토스카나의 풍물들을 더욱 신비롭게 감상하도록 만든다.



Naxos 2.110522

나소스 음악 여행 시리즈 – 르와르의 고성 편

신비로운 르와르 강의 고성들
파리에서 200km 떨어져 있는 프랑스 중서부에는 르와르(Loire) 강이 면면히 흐른다. 프랑스에서 가장 긴 강이다. 완만한 굴곡의 언덕과 숲 사이를 가르며 흘러가는 르와르 강가에는 80여개의 많은 성들이 몰려있다. 그 호화로우며 신비로우며는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다. 르와르는 '프랑스의 정원'이며 고성들의 본고장. 유명한 샹보르 성, 블르와 성 등 아름다운 자태의 성들을 나소스 DVD는 약 1시간 동안 보여준다. 음악도 모두 쇼팽의 작품으로만 선택했는데, 이유를 알만 하다. 쇼팽 음악의 우아한 선율이 호화로운 성곽들의 격조와 위용에 그렇게도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수많은 관광객들의 플래시를 받는 명소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성들을 이 DVD만큼 요목조목 풍성하게 담기는 어려울 것이다.

NAXOS DIGITAL SERVICES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로 선정,
세계 최대 클래식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는 **NAXOS**는

방대한 자체 레퍼토리와 유럽 음반사들의 음원들을 더한
클래식 전문 스트리밍 사이트인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와
재즈 전문의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를 선보입니다.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korea

- 약 13,000개 음반 / 200,000여 트랙의 클래식, 재즈, 월드뮤직 음악 서비스
- Naxos & Marco Polo 전체 레퍼토리
- Analekta, ARC, Artek, BIS, Bridge Records, CBC, Celestial Harmonies, Collegium, Dacapo, First Edition, Gimell, Hänssler, Morrison Music Trust, PentaTone, Prophone, Proprius, Toccata Classics 레이블의 음악
- 매달 25~30여장의 음반 업데이트
- 오페라 대본, 작곡가, 아티스트 및 작품 해설 등의 유용한 정보제공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jazz

- Naxos Jazz와 Fantasy Jazz등 22개 유럽 재즈 레이블 음악
- 총 2,000여 개 재즈 음반 / 약 20,000 트랙
- 약 500여명 에 이르는 재즈 뮤지션 들의 음악

“거대한 음원의 바다...”

(그라모폰 코리아)

“지금까지 접해본 가장 인상 깊은 디지털 라이브러리.”

(미국 도서관 저널, 평가 등급 A+)

“시·공간이 절약되는 온라인 콘텐츠”

Sound Quality: CD Quality (128K) / Near-CD Quality (64K)

시범서비스 & 문의

NAXOS KOREA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 51-37 이테크빌리 1206호

Tel_02 717 1070 / E-mail_naxoskorea@naxos.com

www.naxoskorea.co.kr



아일랜드 뉴 에이지 음악의 거목..... **필 쿨터 베스트 컬렉션**

20여개의 플래티넘 레코드를 기록했던 아일랜드 최고의 뉴 에이지 음악가이며
국민 아티스트인 필 쿨터의 베스트 컬렉션.
가슴을 녹이는 아름다운 명곡 ‘어떤 꿈이라도 이뤄질 거야’를 시작으로 ‘아침이 열렸다’, ‘집에 데려다 주오’ 등
꿈과 사랑, 희망의 메시지가 가득 담긴 잔잔한 선율들의 향연이다.
향수를 자아내는 애창곡과 민요들도 필 쿨터의 본능적인 선율감각으로 빚어져,
주옥같은 서정시로 다시 태어났다.

Phill Coulter .. Sweet Memory



AMC2-015



표지사진 : 마린 알소프

월간 <아울로스뉴스> 2007년 2월호

통권 제 19호 발행 : 2007년 1월 24일

발행인 : 임용목

출력 : 좋은그림 인쇄 : 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edia.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대)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